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18)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6년 5월 14일 (토) 제 1583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교회개혁 가장 큰 장애는 “재정적 압박”

바나리서치, 개척교회 담임목회자 769명 설문조사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은 언제나 유효하다. 미국 사회에서 개척교회 성공 비율이 너무 열악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교회 개혁은 오늘도 계속되어야 한다. 교회 개혁이 이 것처럼 쉽지 않다는 현실이 목회자라면 누구나 다 공감하는 바이며, 신학교 시절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받아 개혁을 꿈꾸는 이들은 자신 앞에 있는 현실이 결코 녹록치 않다는 현실이 목회 사역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절감하게 된다. 교회개혁이 주님이 당부하신 지상의 과제이며 영혼을 사랑하는 여정이어야 하지만, 교회 개혁을 앞둔 개척자에게 두려움이 앞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원인은 바로 교회 개혁 비용 즉, 재정적 불안이 개혁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다.

‘바나리서치’는 교회 재정전문컨설팅 사역단체 (Thrivent Financial of Minneapolis)와 같이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 교회개혁을 감행한 769명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 그 결과를 도출했다. 동시에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미 전역에서 개척된 교회들 통계로 도출된 결과를 비교, 분석해 찾아낸 사실들을 발표했다(Church Planters and the Cost of Starting a Church, 95% 신뢰도, +/-3.5% 오차율).

지난 20년은 교회 개혁의 폭발기이자, 많은 사역 단체들과 네트워크들이 양적으로 팽창한 시기였다. 대부분의 교회 개혁 모델은 도심에서의 핵심 지역이나 교외의 주택 밀집 지역에서 이뤄졌고, 직간접으로 또는 자력으로 교회 개혁 목회자나 그 가족들에게 재정적 지원들이 공급됐다. 따라서 교회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통로들로 재정적 요소들이 충당됐고, 이로 인한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운용해 성공적인 교회 개혁을 이룬 목회자들도 있다.

이번 설문 조사는 특별히 “교회 개혁과 재정”이란 측면에서, 바나리서치는 설문에 참가한 769명의 목회자들에게, 재정 형편을 측정하는데 이미 검증이 끝난 설문(5S Question) 즉 실제적인 재정 상황에 상관 없이 돈에 관해 개인이 느끼는 감정들이나 정서를 물었다:

△생존(Surviving): 어디서든지 재정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투쟁(Struggling):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활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들어하고 있다.

△안정(Stable): 필요한 요구들만을 충족 시키기에 필요한 재정이 공급되고 있다.

△보장(Secure): 필요한 요구들을 충족 시키고도 조금은 남는다.

△과잉(Surplus): 나 자신과 가족들의 필요들을 충족시키고도 남는 것이 많다.

예상대로, 교회 개혁을 감행한 목회자들이 느끼는 개인적 재정 형편에 대한 평가는 미국 전체 인구 평균에는 미치지 못한다.



미국내 교회개혁의 가장 큰 압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한 사람들 중 32%는 투쟁, 아니면 생존에 급급하다고 응답했는데, 미국 성인들은 20%만이 동일하게 응답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되거나 보장된다고 응답한 목회자들 역시 23%로, 41%가 응답한 미국 성인들에 미치지 못했다(과잉 역시 4% vs. 12%).

따라서 교회 개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열정을 다하고 있는 목회

자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재정적 압박이다. 한마디로, 5명의 개척 교회 목회자 중 3명은 미국 전국 평균 소득보다 낮은 사례를 받고 있었다. 39%는 3만5천 달러-5만 달러, 21%는 3만5천 달러를 받았는데, 평균 사례로 따지면 31,525달러이나 그 미만을 받아 정부 지원(food stamps)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3면으로 계속)

경제적 측면 아닌 행복과 삶의 질로 측정

이코노미스트, 국가변형지수 측정, GDP 아닌 대안적 척도 제안

국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나라가 잘 사는지에 대한 기준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다. GDP는 한 국가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와 용역을 수치화한 것이다. 국제 사회에서도 GDP는 각국의 발전 수준을 가능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그런데 수치만으로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GDP보다는, 개인의 행복이나 삶의 질을 새로운 경제 지표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 포럼에서는 국내총생산(GDP)을 대체할 새로운 경제 지표를 개발하자는 주장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이코노미스트지는 GDP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적 척도가 등장해야만, 한 국가의 번영이나 행복 지수를 온전하게 측정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How to measure prosperity: GDP is a bad gauge of material well-being. Time for a fresh approach).



정부 정책입안 초점을 안정성, 빈곤층 소득증대, 삶의 질 측정에 뒤야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은 지난 2008년 런던경제대학(LSE)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 위기 토론에서 한 가지 질문으로 금융 거물들을 압도했다.

“왜 아무도 금융 위기가 찾아오는 걸 몰랐죠?” 이 질문은 그 이후 끊임없이 경제 전문가들을 괴롭혔는데, 앞선 ‘황금기’ 동안 실패의 잠재적 위험성을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성공의 ‘진짜 비용’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나간

황금기는 탐욕으로 얼룩졌고, 급격한 경제성장 와중에 오히려 소득과 삶의 질은 불평등해졌다고 많은 사람이 생각한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과 미국의 지도자들은 이를 이해하는 듯 보인다. 그들이 국가의 생산량을 대체할 수 있는 좀 더 새롭고 포괄적인 정책 목표를 고려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다.

(3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학 사: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석 사: 목회학과 (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박 사: 목회학과 (D.Min)
수료증: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조은출판사

20년 경력의 “월간광야”노하우로 원고 수정부터 편집, 인쇄까지 품격있는 책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Tel (626)789-1301 대표 박희성 목사 myong@joenchulpan.com



7면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용 목사



8면

리더십 코멘터리 손동원 박사



9면

인/터뷰 앤솔로지 앨범 발표



16면

인/터뷰 청교도와 성경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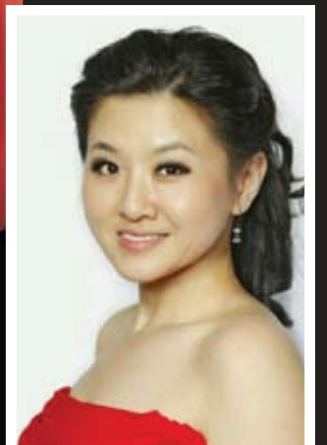
David Song Singers 1st Concert

5.22 (Sun) 2016 7:30pm
Immanuel Presbyterian Church
3300 Wilshire Blvd., LA, CA90010

지휘: 송규식, 반주: 김유경
Horn: Dylan Hart, Trumpet: Michael Davis



음악감독 송규식



반주자 김유경

Acappella Anthems
Solo Yoojin Yang, WiYoung Oh

Horn Mass

Solo Sunjoo Yeo, Gloria Kim, Inseok Oh, SangKeun Chang

Praise Worship

Solo SeungJe Choi, WiYoung Oh, James Sahyo Lee, JiYung Cho

주최: Holy Voice Mission

후원: Dr.GO, LISAA, Korus Medical Group

예매처: Holy Voice 714)699-0210

김스피아노 714)373-8000

리우올림픽의 어두운 그림자, 사라진 거리의 아이들

뉴스위크,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인상주려 노숙 미성년자 임의 구금 보도(상)

브라질 경제는 지금 나락을 헤맨다. 그 수렁에서 벗어나려면 110억 달러를 쏟아 붓는 리우데자네이루(리우)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브라질 정부는 필사적이다. 오는 8월 5일 개막하는 리우 올림픽을 위해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경기장을 짓고 경비원을 고용하고 군경을 배치할 뿐 아니라 리우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을 재 단장하느라 여념이 없다. 그러나 흔히 말하는 브라질 정부의 '거리 정화'는 쓰레기 치우기가

아니라 노숙자와 마약상을 쓸어내는 것을 뜻한다. 리우의 부유한 동네 거리에서 살아가는 마약 중독 어린이도 포함해서다. 따라서 뉴스위크지는 최근 커버스토리로 사라지고 있는 거리의 아이들을 자세하게 보도(Road To Rio: Police Sweep Away 'Street Children' Ahead Of Brazil Olympics)한다. 이 내용을 2회에 걸쳐서 게재한다.

올림픽 개최를 준비하는 구역 중, 코파카바나와 마라카냐에선 심대와 어린이(일곱 살짜리도 있다)들이 길가에서 자거나 구걸한다. 또 갱단에 들어가 마약을 파는 남자아이도 있고 성매매에 나서는 여자아이도 있다. 다수는 코카인을 파이프에 넣어 피우거나 본드를 흡입한다. 일부는 1년 365일 거리에서 산다. 나머지는 밤이 되면 인근의 빈민촌(파벨라)으로 간다. 브라질 정부는 이번 여름, 세계의 눈으로부터 바로 그런 어두운 구석을 숨기고 싶어 한다. 리우의 노숙 어린이의 권리 옹호자들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올림픽을 앞두고 그런 아이



기를 위해 5억5000만 달러를 들여 건설한 멋진 스타디움은 1년 뒤 주차장으로 전락했다. 월드컵 직전 몇 달 동안 브라질을 찾는 외국인 수가 크게 늘었지만 대회가 끝나자마자 관광 열기는 급속히 식었다. 그래도 리우타임스에 따르면 당시 월드컵의 관광 수입 효과는 10억 달러 이상이었다. 브라질 정부 관리들은 '거리의 아이들'을 쫓아내는 것을 포함한 치안 강화가 관광객 안전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올림픽에는 군경 약 8만 5000명이 동원될 예정이다. 2012년 런던 올림픽 당시 안전 요원 수의 약 2배다. 리우 당국

시론

“포기하지 않으니까 도달하더라!”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지선아, 사랑해!>의 저자로 유명한 이지선 자매. 그녀는 십수 년전 불의의 화마를 입기 전까지 예쁘고 똑똑한 명문대생이었다. 맞은편에서 오는 음주 운전차량으로 인해 오빠와 함께 탄 차에서 55%, 3도 중화상을 입고 죽기보다 어렵다는 화상치료술과 재활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고 싶은 순간이 많았다. 그러나 그녀는 아픔을 신앙 안에서 소화하면서 자기 자신의 '괴물'같은 외모를 놓고 자기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생겨서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본다고 생각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리고 자기가 연예인인 이유를 열 가지나 든다. “누구나 쳐다본다. 팬 카페가 있다. 안 고친 데가 없다...” 등등. 비록 외모는 망가졌고 하리도 똑바로 팔 수가 없어서 아직도 아래만 내려다보면서 걷고 있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 자매가 장애 어린이들을 섬기는 단체인 푸르메 재단의 홍보대사가 되어 자기가 마라톤을 뛰면 장애 어린이들에게 유익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2012년에는 뉴욕 국제마라톤대회를 참석하기로 했다. 한 번도 뛰어보지 않은 사람이 42.195km를 뛸 수 있겠는가? 사실은 대회 전날 마라톤 코스를 미리 자동차로 돌아보면서 결코 뛸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10km만 뛰기로 마음먹고 도전했다. 당일엔 10km를 목표로 하고 뛰다가 놀랍게도 목표를 달성했다. 그 순간 5km는 더 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5km만 더 뛰자고 자신을 설득하고 뛰니까 15km 지점도 통과할 수 있었다. 그런 식으로 20km도, 30km도 갈 수 있었다. 그런가 하면 그녀가 너무 힘들어 주저앉아 더 이상 뛸 수 없다고 포기 할라치면 함께 뛰던 다른 선수가 바나나 한 개를 쪼개 반쪽으로 나눠먹으면서 힘내라고 해서 또 일어날 수 있었고, 'Korean'이라는 글씨를 붙이고 달렸는데 “코리안, 힘내라”고 외치면서 격려해주는 외국 선수 때문에 또 뛸 수 있었다. 그러다가 30km쯤 뛸 때에는 어떤 한인이 자신을 응원하는 포스터를 가져와서 “이지선 씨, 힘내요!”라고 외쳐서 또 그 격려에 힘입어 뛰었다. 결국 어디서 그만두어야 할지 몰라서 7시간여 만에 풀코스를 완주했다. 그녀는 그 다음 해에 서울마라톤대회에도 출전하는데 100명을 참여시키고 자신이 101번째 선수로 뛰어서 6시간 만에 주파하였다. 그 대회에서는 함께 뛰니 좀 더 쉬웠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 엄청난 거리를 완주한 비결 세 가지를 간증하였다. 첫째는, 작은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가능했다. 처음부터 풀코스를 다 뛸겠다고 담뭍들었으면 아마 포기했을 텐데 짧은 거리를 목표로 잡았다는 것이다. 둘째는, 포기하지 않으니까 목표점에 도달하더라. 중간 중간에 주저앉고 싶은 순간, 끔찍할 수도 못하는 순간이 너무 많았지만 그저 포기하지 않고 뛰다가 걷다가 보니까 완주하게 되었다는 사실! 죽을 만큼 어려운 시간이 많았지만, 잠깐 쉬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했지만 결국은 포기하지 않고 가다보니 풀코스를 다 뛸 수 있었다는 것이다. 셋째는, 함께 뛰니 완주하기가 더 쉬웠다. 이것은 두 번째 마라톤 대회에서 얻은 교훈인데 101명이 앞서거나 뒤처지거나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격려하니 완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자매는 온 몸이 다 망가져서 40번 이상 화상치료를 받았지만 온전히 못한 몸이다. 또한 여러 보이는 외모에 마라톤을 두 번씩이나 완주하였다는 사실이 자못 놀라웠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이 가슴에 와 닿았다. “포기하지 않으니까 도달하더라!” 오늘날은 감성이 지배하는 시대다. 아무리 옳고 좋은 것이라도 자기가 싫으면 끝이다. 사람들은 참을 줄을 모른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못 살던 시대에 비해 훨씬 잘 살게 된 지금 자살률이 비교할 수 없이 높은 이유는 참을 줄을 모르기 때문인 이유가 대부분이 아닐까. 결혼한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이혼을 감행하는 이유가 또한 참을 줄을 모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 시대 대부분의 교회들에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를 결핍하면 떠나는 이유가 인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97세의 나이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김형석 교수는 60세에 뇌출혈로 쓰러져 20년 세월 동안 눈만 깜빡이는 상태에서 산 부인을 차에 태워 돌아다니며 세상을 보여주고 맛난 음식을 입에 떠 넣어 주었다고 한다. 그 부인이 1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집에 혼자 살고 있다고 한다. 그가 딸에게 언제 그랬다는 말이 그의 인생이 그렇게 늙도록 빛이 나는 비결이 아닐까.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그저 인내 하나 배워 오는 것 같다.” 김 교수의 말에 의하면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는 인내 하나 배우기 위해서라 할 수 있다. 인내를 배우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각자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danielkmin@yahoo.com

브라질 정부 '거리 정화' 는 어린이 포함 노숙자, 마약상 쓸어내기 2만4000 노숙아들, 학대·성적 착취·경찰폭력까지... 인권단체 항의

들이 경찰에 의해 임의적으로 구금되고 있으며, 일부는 그냥 사라진다고 말한다. 그들은 학대나 극심한 가난으로 가출한 아이들 수천 명이 '거리 정화'로 더욱 비참한 나날을 보낼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한다.

“해피 차일드 인터내셔널(브라질 동북부 항구도시 헤시피에서 여자아이들을 위한 쉼터를 운영한다)”의 자원봉사 직원 다니엘 메데이로스는 “정부가 올림픽을 위해 거창한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군경을 동원하고 특정 지역을 재단장하며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거리의 아이들'이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면서 모든 것을 걸만 번드르르하게 꾸민다. 브라질이 안전하고 깨끗하며 멋지고 행복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만들려고 안간힘을 쓴다.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거짓된 모습이다.”

요즘 브라질은 뭣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 보인다. 대규모 부

패 스캔들로 정부가 마비됐다.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예산 적자를 감추기 위해 장부를 조작했다는 혐의에 탄핵에 직면했다. 게다가 브라질은 1930년대 이래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는다.

2009년 리우가 올림픽 유치에 성공했을 때만 해도 경제가 급성장했다. 당시 브라질은 '떠오르는 신흥국'으로 불리며 전 세계의 부러움을 샀다. 2010년의 경제성장률은 7.5%였다. 그러다가 호세프 대통령의 첫 임기(2011-14년) 동안 성장이 둔화되면서 평균 2.2% 성장률을 보였다. 호세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지난해 브라질의 국내총생산(GDP)은 오히려 3.8% 줄었다. 마이너스 성장이었다.

리우는 2주 반 동안 열리는 올림픽(그 후 패럴림픽이 11일간 이어진다)에서 선수 1만 5000명, 자원봉사자 4만 5000명, 진행요원 9

만 3000명, 관광객 38만 명이 현금을 뿌릴 것으로 기대한다. 입장권 판매 저조 등 일부 차질이 빚어졌지만 호텔은 예약이 벌써 거의 찼다고 알려졌다. 리우 올림픽조직위원회는 성공적인 개최를 낙관한다.

그러나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 주최에 따르는 재정적 혜택은 여전히 논란이 많다. 브라질 정부는 2014년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약 110억 달러를 지출했지만 기대하던 업계의 호황과 관광 붐은 지속되지 않았다. 수도 브라질리아에 월드컵 경

은 '거리의 아이들'의 범죄를 막기 위해 그들을 구금한다고 말했다.

근거 없는 우려는 아니다. 지난해 브라질의 TV 뉴스는 어린이 갱단이 리우의 유명한 코파카바나·이파네마 해변에 몰려들어 휴대전화와 지갑 등 귀중품을 낚치기하자 관광객들이 황급히 도피하는 장면을 내보냈다. 코파카바나 주민은 강도에 대응하기 위해 '자경단'을 만들었다.

(4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준
■ 편집국장: 유원정

·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net

· N.Y. Office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 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 표)
·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Midwest University

초청! 개교 30주년 기념 특강 및 학위 수여식

Global Leadership Forum

설립자, 총장
Dr. James Song

Alexander Trofimovich Semchenko
러시아 모스크바 건설그룹 회장
러시아 기독교 연합회 총회장 역임
Russia's Christian past, present and future
주제: 러시아의 기독교, 과거, 현재, 미래

Dr. Pho Kaung
President, University of Yangon
미얀마 양곤 대학교 총장
Myanmar's education and future
주제: 미얀마의 교육과 미래

Buhm Jung Roe, CEO
NY FUND CEO, 뉴욕투자회사 회장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Seoul, Korea, 뉴욕 명하원에 수석고문 겸총장직을 역임
For your future/ Invest to America
주제: 당신의 미래를 위해 미국에 투자 하라!

Dr. Dae Y, Shin CEO, DSE
DSE 미국 청년유기 '병커 버스터' 개발회사
미국전력의 핵심부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주제: 최첨단무기와 미국 & 리더십

Special Programs

June 13-18, 2016

- ▶ Global Leadership Forum 리더십 포럼
June 17, Friday 8:30 am-12:00 pm
- ▶ Commencement 학위수여식
June 17, Friday 3:00 pm- 5:00 pm
- ▶ Midwest Concert. 축하 음악회
June 17, Friday 7:00 pm-9:00 pm
- ▶ IEA Ordination 목사안수식
June 18, Saturday 10:00 am-12:00 pm

문의: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703)626-8712
E-mail: wdc@midwest.edu, ykko9191@yahoo.com

교회개혁 가장 큰 장애는 “재정적 압박”

(1면에서 계속)
 결국 교단이나 모 교회 아니면 개인 독자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에, 그 지원이 일시적 또는 장단기적으로 중단되거나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야기 된다. 다시 말해서, 재정적 부담을 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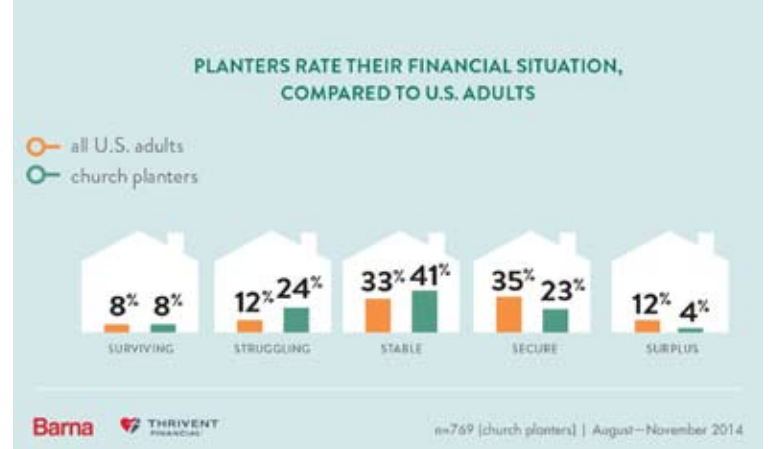
도시나 인구가 많은 외곽 도시 지역을 선호하고 있다. 즉 16%가 대도시, 26%는 중형 도시를 그리고 28%가 메트로폴리탄에 인접한 도시 중심에서 교회를 개척했다. 그러나 도시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목회자들에게는 저마다 독특한

재정적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다. 도심이나 도심 주변 커뮤니티들은 다양성을 갖지만, 인종, 교육 수준, 소득 차이, 나이 그리고 문화적 차이들이 있다. 따라서 도시에서 개척을 감행하는 목회자들은 교나 시골과는 달리, 정말 다양한 소득 차이와 필요들이 있어 어느 정도는 체계가 잡힌 프로그램들과 이

를 운용하기 위한 공간들을 유지하는 경비들이 요구된다. 여기에, 도심에서 사는 사람들은 소득 차이라는 상관없이 생활비가 더 많이 요구되기에, 개척교회 목회자에게는 또 다른 재정적 부담이 된다. 결론으로, 바나리서치는 이번 설문 결과를 토대로, 개척교회를

32%가 생존 급급... 개척사역 포기고려 33%, 결혼생활 위기 35% (대)도시나 근교는 인종, 교육, 소득, 문화적 차이 다양 더 힘들어

개척 교회 사역을 그만둘 것을 고려한 목회자들이 33%나 됐다. 또한 가정을 꾸려 나가야 할 가장의 책임이 있기에 결혼생활마저도 힘들어지는 목회자들도 35%나 됐다.



한편 개척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들의 재정적 현실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중에서 “위치”는 단연코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다. 10명 중에서 7명이 목회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들이나 준비 중인 목회자들이 재정적 부담에서 해방되는 솔직한 열려있는 재정 현실에 대한 진지한 토의가 이뤄지기를 소원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얻어진 혁신적인 생각들과 동기 부여들이 건강하고 알찬 개척교회 운동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박재호 목사 (브라질 새소망교회)

소망 칼럼

신앙인의 불신앙

겉으로는 그리스도를 따른다 하면서 내면으로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위험하다고 했다. 외형적으로만 그리스도를 따르고 속마음이 다른데 가 있는 사람은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가리키 또는 염소와 같은 자라고 표현하셨다. 신앙인의 불신앙이란 신자 같은데 실은 신자가 아닌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첫째, 부화뇌동(附和雷同)하는 사람이다. 부화뇌동은 아무런 주견(主見)없이 남이 하니가 나도 한다는 식의 태도를 의미한다. 오늘날 특히 이민 사회에는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가니까 자기도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주체성 없이 군중들이 하는 대로 따라 움직이는 것이 군중 심리이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 휩쓸려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 그냥 따르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예수를 떠나고 말았다.

둘째, 표리부동(表裏不同)한 교인이다. 표리부동이란 속 다르고 겉 다르다는 말이다. 속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분의 말씀에 순종해서가 아니라 현재 벌리고 있는 자신의 사업이나 직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겨우 한번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있다. 교인이라는 명분을 유지하기 위해 교회 출석은 하고 있지만 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도 믿지 않는 사람이다. 봉사도 헌금도 전혀 없고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만 출입하는 사람이 표리부동한 교인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신행일치(信行一致)의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믿음을 생활로 표현하는 경건한 생활과 예배드리는 일을 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에 영접해야 한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고 헌금하고 봉사해야 한다. 자신이 복음을 믿고 구원 받았음을 믿기 때문에 남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으라고 전도해야 한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어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

셋째, 외형주의(外形主義)의 사람이다. 교인들 중에는 겉으로 드러난 것에만 관심을 갖고 쫓는 자들이 있다. 교인의 숫자나 교회당의 크기와 화려함에 끌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 즉 병 고침과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고 그 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를 보고 주님이 “너희가 본다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고 하셨다. 교인 중에 진리의 말씀보다 외형적 현상에 더 많은 흥미를 가진 자들이 외형주의자이다. 목사의 화려한 학벌, 웅장한 교회당 건물, 교인들의 생활 수준을 보고 그 교회에 나가는 자들이 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말씀의 집이다. 교회는 믿음의 집이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선교하는 집이다. 교회는 은혜의 집이다. 떡 먹을 사람은 떡집을 찾고 밥 먹을 사람은 밥집을 찾듯이 하나님 믿고 예배드리고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사랑받고 봉사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믿음으로 축복 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전도하고 장차 삼급 받고 바로 믿고 바로 살려야 하는 사람은 외형보다 내용이 있는 교회를 선택하여야 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요6:7)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요6:8)라고 대답하였다. 이사가야 29:13에 보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존경하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도다”라고 하였다. 이것이 오늘날 교인 중에 진실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 축복의 말씀 중심의 참된 신자가 되기 바란다. 레오 N. 톨스토이는 “신앙 없는 인간의 생활은 짐승의 생활이다”라고 하였고, 또 “신앙은 인생의 힘이다”라고 하였다.

nammicj@hanmail.net

경제적 측면 아닌 행복과 삶의 질로 측정

(1면에서 계속)
 이러한 목표는 실제로 설정 가능한데, 필자를 포함한 경제 전문가들은 레가툼 연구소의 보고서를 통해 주관적이긴 하지만 ‘삶의 질’ 또는 ‘삶의 만족도’를 국제 비교가 가능한 형태로 일관성 있게 측정하고, 정책 입안과 효과 판단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가 할 일은 삶의 질에 실제 초점을 두는 것이다.

정신적 건강 같은 삶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요소에 정책 초점을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대부분 국가에서 정신 건강은 우선순위에 밀리지만, 사람들이 인생을 어떻게 느끼는지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교통사고보

나라 시민의 만족도와 번영을 위한 예산 재분배이다. 이러한 노력을 이끌고 그 과정을 평가하는 데는 신뢰 가능한 자료가 결정적이다. 세계는 새롭고 포괄적인 발전과 번영에 대한 지표들 받아들이 준비가 되었다.

GDP를 제외하고 그 외 요소들을 평가 대상으로 포함한 지표들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온다. 예를 들어, 유엔개발계획(UNDP)이 문

등 국가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다. 104개국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되는데, 개인의 자유(personal freedom), 경제 성장(economic growth), 민주주의(democracy), 삶의 질(quality of life), 행복(happiness) 등이 주요 평가 항목이다.

2009년을 기준으로 한 이 지표에 따르면, 핀란드, 스위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GDP 1위인 미국은 9위에 머물렀다. 아시아 국가들은 GDP 순위보다 번영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는데, 이는 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에 대한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즉, 경제력은 높지만 국민이 진정한 풍요로움을 느끼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16위), 홍콩(18위), 싱가포르, 대만, 한국(26위) 순이다. GDP 3위인 중국은 75위로 중하위권에 불과했다.

영국의 NEF 재단에서는 기대 수명, 삶의 만족도, 환경오염 등을 주요 기준으로 행복지수(Happy Planet Index)란 것을 내놓았는데, 그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다른 지수 결과들과 다르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중남미의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자메이카 등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이 지수는 평가 기준 자체가 얼마나 주어진 환경과 그 환경을 소중하게 여기는지가 중요하다. 이 지수에 따르면, 미국은 불과 114위에 불과하다.

결론으로, 과연 어떤 나라가 가장 살기 좋은 것이며, 어떤 기준이 이를 정확히 나타내는지에 대한 의견은 앞으로도 분분할 듯하다.



첫째, 정부는 다른 측면이 희생되더라도 ‘안정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테면 금융 위기는 일단 발생하면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피해가 크다. 더구나 금융 위기의 충격에서 회복될 수는 있어도, 호황과 불황을 겪는 과정에서 ‘삶의 질’이 나빠진다. GDP(국내총생산)가 감소했던 만큼 다시 증가한다 해도 삶의 질이 같은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둘째, 부유층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이 커질 때 전반적 삶의 질이 더 개선된다. 이것이 유럽의 부유한 국가들이 재정 부문에 더 많은 장치를 설치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셋째, 정책을 입안할 때 삶의 질을 측정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가장 빠른 효과를 낼 것이다. 예를 들면 병원에 환자가 많고, 화재 진압 건수가 많을수록 GDP가 올라간다.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런 필요 자체가 적도록 하는 편이 더 좋을 것이다. 대인 관계, 공동체, 치안, 신체·

다 더 많은 사람이 자살로 세상을 떠났다. 영국에서는 정신 질환이 제대로 치료되지 않아 삶의 질은 고사하고 장애 급여와 소득 능력 상실로 엄청난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은 삶의 질을 개선하는 출발이 된다. 이런 사례는 삶의 질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지원이 타당성을 가질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목표는 예산 증액이 아

자해독률, 수명, 1인당 실질국민소득 등을 토대로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에 따르면,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캐나다 등이 상위권에 포진해 있고 한국은 25위다.

또한 영국의 싱크탱크인 레가툼 연구소(Legatum)가 발표하는 번영지수(Prosperity Index)라는 것도 있다. 이것은 각국의 경제력뿐만 아니라, 교육, 치안, 정치적 안정, 개인의 자유, 사회 간접 자본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www.rptse.com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군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특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발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외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학과

대학부	신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교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	목회학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교학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문의처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영춘 박사



목회서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로 양육하라



김백 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자녀들이 주안에서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엡6:1) 하나님 말씀이 어긋나지 않는 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

종하라고 말씀하신다. 이어서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엡6:2-3)고 말씀하신다. 공경(Honor)은 부모가 존경받을

만한 점을 찾아 부각시키고 자랑하고 높이고 거듭 거듭 기린다는 뜻이다. 우리 부모에게는 반드시 존경받을만한 점이 있고 그것을 찾아서 인정하고 높이고 기려야 한다. 부모는 생명의 통로이다. 하

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사용하신 은혜의 통로이다. 자신을 이 땅에 존재케 하신 이유만으로도 부모는 공경 받아야 한다.

부모 공경은 내가 먼저 해야 한다. 자식 앞에서 부모를 폄하하거나 낮추는 말과 행동을 삼가라. 이것은 자녀의 인생에 독을 심는 것이다. 심은 대로 내가 거두게 된다.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모가 공경을 받은 만한 짓을 해야 공경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도사리고 있다. 내가 이런 마음을 품으면 그대로 내 자녀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말하게 된다. 사실 부모가 된 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존경받

을 부모가 아니라 고백하게 된다.

자녀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부모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일이다. 부모를 공경할 이유를 발견하고 공경을 실천하는 일이다. 그래야 내 자녀들도 그렇게 보고 배울 수 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축복이 두 가지 있다. 형통과 장수이다.

형통은 그의 인생에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형통이다. 장수란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역사하여 기쁨과 행복이 일생을 사는 동안 넘치는 삶이 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 자녀가 이런 삶을 살게 되는 명령

의 말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이다.

요즘 가정의 서열은 엄마, 자녀, 강아지, 아빠 순이라는 농담들을 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엄마는 자녀들 앞에서 아빠가 존경받도록 세워야 한다. 예전의 지혜로운 어머니들은 아버지가 밥상에서 손가락을 들기 전에 자녀들이 먼저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다. 이것은 순전히 올바른 자녀 양육을 위한 일이다. 오늘 이 시대에 바라는 아빠가 기도하고 먼저 식사를 시작할 때에야 자녀들도 음식을 먹게 하는 이런 좋은 습성을 전파해야 한다. 가정의 달을 맞아 이런 효의 운동이 교계에 전파되어지기를 소망한다.

이때

푸 / 른 / 초 / 장

오세훈 목사

(세계소망교회)



습니다. 요즘 대기업들은 공부만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인간관계의 사람 됨됨이를 보아서 회사원으로 뽑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귀하고 진정한 실력은 공부를 잘하거나 무엇을 특별히 잘하는 것보다 협력하여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4:9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하였고, 바로 이어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사람과 만나도 협력하는 마음, 수고하는 사람들을 존경하는 삶이 되어서 여러분의 주변이 화평해 지시기를 축원합니다.

3.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17절).

가에 돌아가게 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바울인데 바울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 택함 받은 그릇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령을 부르짖으며 선교하였지만 사람들과의 융화는 좀 부족하였습니다. 이 바울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여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행 11:24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 하더라" 하였고 행4장에 보면 바나바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자기 밭을 팔아 희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소에 가 있는 사울을 찾아가 그를 데리고 와서 바울이 하나님의 일에 더욱 쓰여 지도록 도운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이러한 부족한 점을 채워서 훌륭한 일꾼을 만들어 낸 사람입니다.

남편이나 가족, 그리고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남의 부족한 점이 보

여가 없어 답답하지 않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고속도로처럼 시원시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산길처럼 꾸불꾸불하고 배배꼬인 뱀처럼 도무지 복잡하고 그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단순하고 순전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남의 마음을 답답하지 않게 하고 시원케 할 수 있습니다. 남의 마음을 알아주고 시원케 해 주는 사람이 많아 져야 합니다.

잠25:13절에 보면 "충성된 자자는 그를 보내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케 하여, 본인 자신도 시원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갈렙은 믿음으로 가난한 땅에 들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같이 들어온 친구이자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내 나이가 85세로되 내가 40대와 같으니 헤브론을 내게 주옵소서" 하였습니다. 헤브론은 그 지형이 난공불락이었으며, 거인 아낙자손이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달라고 하면서 갈렙이 85세가 되었는데 어떻게 40세와 같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40세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갔고 85세 된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할 수 있으니 두려움이 없다는 믿음을 표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다고 고백하셔야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세 사람을 칭찬하면서 부탁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섬기기로 작정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자들에게 복종을 잘하며 남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므로 주님을 시원케 하고, 다른 사람을 시원케 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이런 성도들을 알아주는 풍토가 되어 나의 주변을 밝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호에 계속)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고린도전서 16:15-18)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가운데 마지막 인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실 그 때 당시에 가장 타락한 도시 중에 세워진 교회였으므로 교인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악한 풍습에 물들어 있었고 이단 사상을 버리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였기에 바울이 매우 답답해하고 염려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인사 중에 세 사람을 통하여 마음이 시원케 되었다는 칭찬을 하면서 그들을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세 사람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였기에 저희가 너와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는 칭찬을 하며 그들을 알아주라고 합니까? 그 내용을 살펴보고 은혜 받으려고 합시다.

1.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15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마치면서 칭찬한 사람들은 스테바나와 브르나나와 아가이오인데 이 사람들 가운데 스테바나는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하였기에 아가야 지방에 전도하여 얻은 첫 성도입니다. 이 세 사람은 전도 받아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가장 지켜야 할 덕목인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믿음을 갖고 자기의 영예를 얻고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막10:45)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섬김의 자세는 어떤 것입니까?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자체가 낮

아지신 분입니다. 어렸을 때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다가 주의 성전에 들어가 말씀을 토론하셨고 청년 시절엔 가족을 위해서 봉사하셨습니다. 사역을 하시면서 부자나 권세 있는 사람들 편에 서기보다는 가난한 사람 사람들을 찾아서 진리를 가르치시며, 병든 자를 치료하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겹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섬기신 주님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섬기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젊음을 주시고 여러 가지 재능을 주시고, 물질의 축복주신 것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을 섬기는 생활이야말로 하나님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는 진정한 삶의 보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섬기며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평가하기를 바보 같은 사람들 이라고 말합니다. 선행을 하지만 오히려 비웃음을 당하는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보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라보면 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칭

찬을 해도 흥을 봐도 은혜로 생각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빌 4:12)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어떤 형편에 처해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 내겠다는 비결입니다.

2.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하였습니다(16절).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함유하는 스테바나, 브르나나, 아가이오를 대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데 함유하는 그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자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나만 하나님께 충성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심이 떨어지면 떨어지지 계속 지속하기 힘듭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혼자 있을 때 공격합니다. 다윗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기를 부은 중을 해치지 않았다고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가 언제 유혹을 받았습니까? 지붕 위에 혼자 있을 때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도록 되어있지 않

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모든 동물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부르면 부르는 대로 그 동물을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니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어 그를 돕는 배필로 삼아 보충하였습니다.

율법도 하나님께서 보충시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고 이것을 지키면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한 사람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율법이 부족하니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온전히 지키게 하였고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

이하는 그것을 들춰내고 지적하고 비난하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점을 위해 기도해 주고 보충해 주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서로 부족한 점을 알면서도 덮어주고 감싸주고 보충해주는 사회가 곧 천국의 대리점입니다.

약점을 들춰내고 지적하고 비난하므로 그를 낮추고 나를 높이려는 사람은 마귀가 기뻐하는 사람이지만, 서로 남의 부족한 점을 나의 아픔으로 여겨 그것을 보충해주는 사람은 천국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습니다(18절).

'마음을 시원케 하다'라는 말을 사전에 보니까, 더위가 가시도록 시원하다. 마음에 부담을 주던 것이 해결되어 가벼하고 개운하다, 서글서글하고 활발하다, 앞이 막힌

리우올림픽의 어두운 그림자, 사라진 거리의 아이들

(2면에서 계속)

그들은 지나가던 버스를 세우고 유리창을 깨 다음 버스에 타고 있던 절도 용의자 1명을 끌어내려 폭행하는 보복 범죄도 저질렀다. 최근엔 경찰관으로 구성된 민간 보안서비스가 리우의 부유한 남부 구역에서 등장했다. 그들은 월 약 250달러에 노숙자를 동네에서 쫓아내주겠다고 제안한다.

가난과 학대로 가혹해 노숙하는 '거리의 어린이'가 브라질 전국에 약 2만4000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리우에서 경찰에 구금된 '거리의 아이들'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다. 유엔은 그들이 "근거 없는 의심을 받아 경찰서로 구인되거나 적절한 법적 보호 없이 임의로 소년원으로 보내진다"며 우려를 표

했다. 인권변호사들은 그들이 기소되지 않고 곧바로 범죄자로 취급 받는다고 말한다. 브라질 교도소는 원래 초만원으로 악명 높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수감자가 크게 늘었다. 청소년 갱생시설에서 교도관의 학대도 빈번히 발생한다.

브라질에서 국제 어린이 권익단체 테르데조를 위해 일하는 언론인 베스 맥러플린은 "특정 구역에선 아이들이 거리에서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다"고 말했다. "브라질 정부는 전 세계에 화합의 이미지를 보여 주려고 발버둥치지만 실제로는 화합을 찾아볼 수 없다."

지난해 여름 당국은 청소년 갱단의 행패를 우려해 버스를 타고 리우 해변으로 가던 미성년자 100명 이상을 체포했다. 운동가들은 당국의 그런 행동이 인권 침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그러자 네이루 주지사 루이스 페르난두 페자웅은 리우 언론에 이렇게 말했다. "미성년자가 저지른 해변 갱 습격 사건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버스에 탄 미성년자 전부가 잠재적 범죄자라는 건 아니지만 그중 다수는 5년, 8년, 10년, 또는 15년 체포된 적이 있다."

지난 2월 25개의 인권·시민단체가 '거리의 아이들' 구금에 항의하고 그들이 경범죄를 저질렀다는 정부의 주장에 의문을 표하는 공개서한에 서명했다.

맥러플린은 "단순히 범죄를 저지른 가능성 때문에 그들을 구금하는 건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말했다. "이 문제는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올림픽을 앞두고 더욱 심해졌다. 따라서 이제 그들의 인권 침해를 막는 게 더 중요해졌다."

사실 그건 삶과 죽음의 문제다. 브라질의 미성년자 피살율은 세계

2위다(1위는 나이지리아). 유엔의 어린이 구호기관 유니세프에 따르면 브라질에서 폭력으로 사망한 어린이 수가 지난 20년 동안 2배로 늘었다. 2013년 미성년자 살해는 연간 1만5000건이었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리우에서 발생하는 살인의 약 16%를 경찰이 저지른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그런 극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에두아르두 데 예수스(10)는 리우의 빈민가 알레망에 있는 집 현관문 앞에 앉아 휴대전화로 놀고 있었다. 집에 있던 그의 어머니가 총소리를 듣고 뛰어내렸다. 아이가 피를 흘리며 숨져 있었다.

그녀는 곁에 있던 한쌍들을 보고 "네놈들이 내 아들을 죽였어"라고 외쳤다. 그녀가 국제앰네스티에 전한 말에 따르면 당시 1명이 이렇게 대꾸했다. "내가 당신 아들을 죽였듯이 당신도 쉽게 죽일 수 있다. 난

사기꾼과 범죄자의 아들을 죽였다."

인권운동가들은 그런 죽음이 가난하고 피부색이 검은 브라질인에 대한 차별과 관련 있다고 지적한다. 부유하고 피부색이 흰 브라질인은 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해 소동을 부려도 관망하지만 피부색이 검은 가난한 청소년은 가만히 있어도 늘 의심 받는다는 얘기가.

유니세프의 어린이 보호 조사관 파비아나 고렌스타인은 "피살된 청소년이 많고 상황이 절박하다"고 말했다. "안타깝게도 이 문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제 시간이 없었다. 그런 폭력을 당장 중지시켜야 한다." 그러나 브라질인 다수는 '거리의 아이들' 단속을 지지한다. 인권단체 국제어린이보호기구(DC)에서 일하는 지미니우스 미구엘은 올림픽을 앞두고 당국이 무지해낸 단속에 나서서 것이 '거리의 아이들'을 향한 대중의 뿌리 깊은 적대감을 반

영한다고 말했다.

"그들을 쫓아내는 조치가 널리 호응 받는다. 그들은 인격체로 대우받을 권리를 가진 어린이가 아니라 그냥 미성년 범죄자로 인식된다. 그 아이들 중 다수는 학대와 성폭력, 가난을 피하려고 집을 나와 거리에서 지낸다. 그런데 거리에선 더한 학대와 성적 착취만이 아니라 경찰의 폭력에도 시달린다."

2014년 월드컵과 올여름의 올림픽을 앞두고 리우 당국이 '거리의 아이들'을 거칠게 다루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브라질 정부에 대한 불만이 쇄도했다. IOC 비판자들은 대규모 스포츠 대회가 민간기업과 산업에 단기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주최국에서 권리를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는다고 지적했다.

(다음호에 계속)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6월 7일 캘리포니아 예비선거...투표는 곧 그리스도인들의 책임

2016년 6월 7일에 있을 캘리포니아 예비선거와 11월의 총대선은 우리 모두의 신앙과 가정, 그리고 자녀들의 미래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걸고라도 싸워야 할 만큼 매우 중요한 대사이니입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받은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강조할 수 없을 만큼 투표에 꼭 참여하는 것은 필수적인 책임입니다.

한 정치세미나에서 한인2세 주류 정치인은 "낙서를 지우는 작은 일에서부터 이민정책을 바꾸는 것까지 우리 일상에서 정치와 연관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 삶을 좌우하는 모든 것은 정치에서 시작됩니다. 투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하였습니다.

예비선거와 대선 때 후보자를 뽑을 선택의 기준은 어떤가요?

첫째, 대통령 후보자로 나온 사람들의 가치관 둘째, 그 후보자들이 속해 있는 Political Party(정당)의 "가치관"에 주목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FACT)을 알고 현명한 투표를 하는 것이야말로 곧 쏟아지는 미디어에서의 혼란스러운 내용으로 가득 찬 미국의 상황 속에서 분별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후보자를 뽑을 때, 대통령 후보자만 보지 마시고, 그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political party)이 그동안 어떤 가치관들을 강력히 추진해왔고 또는 반대하는 정책을 세웠는지에 주목하세요.

예를 들면, 지난 7년간 미국전체를 지난 236년 역사 중 가장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든 친동성애, 친이슬람, 무분별/변태적인 성교육을 추진하는 법안들 중에서 몇 가지만 아래에 소개해드립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미 통과된 법안들

SB 48(2011, Mark Leno 민주당, 동성애 운동가-Text LGBT Education)

친동성애 교육인 동성 결혼관, 동성 가정관, 동성 성관계 등을 정상적이라며 긍정적으로 유치원(K)부터-12학생들 교과서에 집어넣는 법안.

AB1266(2012, Tom Ammiano

민주당, 동성애 운동가 Co-Ed Bathroom Bill)

K-12 남녀학생들이 혼용으로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법안. 이 법안을 반대하는 팀에 의해 현재 법정소송이 걸려있습니다.(http://transgenderlawcenter.org/archives/8756).

AB 1732(2016, Phil Ting 민주당의원 All Gender Bathroom Bill)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든 공공장소 화장실을 남녀혼용 화장실로 만드는 법안이 올라와 현재까지 샌프란시스코 민주당 전체에 의해 14:00으로 통과, 앞으로 상하 의원 쪽으로 넘어갈 것임(http://asmc.org/members/a19/news-room/press-

SB 274(2013, Mark Leno 민주당 상원의원, Legally allowed to have more than three Parents)

아이들의 부모가 엄마, 아빠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모습으로 될 수 있도록 허용. 자녀양육권에 대한 권리 역시, 한 부모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부모에게 허용케 하는 법안.

http://articles.latimes.com/2013/oct/04/local/la-me-brown-bills-parents-20131005

AB 1951(2014, Jimmy Gomez 민주당-LGBT & birth certificate)

동성애자들이 아기를 입양할 때, 자신을 엄마로 할지, 아빠로 할지,

다. http://www.huffingtonpost.com/2012/12/17/white-house-gay-marriage-proposal_n_2317455.html

2015년 미국 역사상 최초 동성애 결혼이 미전역에 합법화 되었습니다.

2015년 8월 미국 최초의 성전환한 남성을 백악관 인사관리 중책자리에 앉혔습니다.

Raffi Freedman-Gurspan(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함)은 National Center for Transgender Equality(성전환자 인권단체)에서 정책을 책임지던 사람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 사람을 뽑은 것에 대

대통령 후보자만 보지 말고 소속정당의 행적과 가치관에 주목 이미 통과된 친동성애법 많아...All Gender 화장실법안 논란중

releases/new-legislation-to-expand-equal-restroom-access-in-california)

SB 1172(2013, Jackie Speier 민주당-Ban Gay Conversion & Change of Sexual Orientation)

동성애자들이나 자기의 성별에 혼돈스러워져 카운슬링을 받아 정상인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도와주던 모든 상담(주로 기독교상담)과 테라피(Therapy)를 없애는 법안. 또한 이 법안은 "Sexual Orientation 자신이 생각하는 성별"을 주장할 수 있기에 앞으로 어떤 "성별"에게든 "자기가 생각하는 성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무서운 문을 열어버린 법안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SB 1172에 "소아성애자들은 제외한다"라는 문구를 이 법안에 따로 넣어 법안을 수정해야한다고 캘리포니아 공화당이 강력히 주장했으나 숫자적으로 밀리는 공화당 의원들의 의견은 무시된 채, SB 1172는 주지사 제리 브라운에 의해 2012년 겨울에 통과되어 2013년부터 유효해졌습니다.

http://www.huffingtonpost.com/2012/09/30/jerry-brown-sb-1172-gay-conversion-therapy-california_n_1926855.html

http://wdtprs.com/blog/2013/04/does-a-california-bill-really-classify-pedophilia-as-a-sexual-orientation/

그냥 "부모"라고 할지 부모들의 입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법안이다. 이 법안의 위험성은 부모들도 자기 맘대로 Birth Certificate에 "성별"을 적지만, 입양해온 아이들의 "성별"까지도 동성애 부모들 마음대로 적을 수 있는 문이 열려 있기에 아이들에게는 여러모로 해로운 법안이다.

https://www.iflg.net/new-birth-certificate-law-allows-lgbt-parents-to-identify-as-mother-father-parent/

http://www.charismanews.com/us/45114-same-sex-parents-may-land-on-california-birth-certificates

이제는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버니 샌더스 대선 후보자들이 속한 민주당이 지난 1년반 동안 결정한 것들 중 몇 가지와 "최초"로 내린 정치적 결정들을 알려드리니 여러분께서 지혜롭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백악관 내의 최초 게이 프로젝트

오바마의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매년 백악관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애자들을 위한 파티를 열어주곤 했는데, 최초의 게이 프로젝트가 2012년에 백악관에서 있어서 당시 친동성애 정치인들과 운동가들에게는 큰 뉴스였습니다. 그 이후로 너무 많은 일이 있었지만 생략합니다.

해 "미국을 더 미국다워지게 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린다"라고 발표하며 Raffi Reedman-Gurspan을 outreach and recruitment Director in the White House Office of Presidential Personnel(백악관 인사과 Director)로 고용하였습니다.

2015년 9월 미국 최초의 "Openly Gay U.S. Army Secretary" 공공연히 자신을 게이라고 알린 Eric Fanning을 미국 육군참모총장으로 뽑았습니다. 2009년부터 오바마 대통령과 정부는 미 군대에 "Don't Ask, Don't Tell"이라는 법을 만들어 동성애우호운동을 이미 펼치며, 군대전체에 친동성애 정책을 여러모로 강화시키다가, 이번엔 정식으로 육군총장을 동성애자로 미국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http://www.wsj.com/articles/obama-appoints-eric-fanning-as-first-openly-gay-u-s-army-secretary-1442613600

2016년 3월에는 Raffi Freedman Gruspan의 직책을 한층 높여서 전적으로 백악관과 동성애/성전환자들의 연결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Liaison 역할을 맡게 함으로, 앞으로 백악관에 더 많은 동성애/성전환자들의 정치적 연결을 시키게 되며, 미전역에 그들의 권리와 인권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도록 힘을 더해졌습니다.

(10면으로 계속)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는 5년 전에 미국에 와서 어떤 사업에 손을 대었다가 실패해 한국서 가져왔던 거액의 돈을 날렸습니다. 매우 의외하고 믿었던 친구와 동업하였다가 이해관계로 결국 배신을 당하고 많은 아픔과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 후 저는 매사에 자신감을 상실하고 사람을 의심하는 습관까지 생겼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1년 전부터 교회에 나가면서 믿음생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과거의 아픔을 극복해야 할까요?

-세리토스에서 kim 성도

A: 먼저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이나 돈 거래는 가까울수록 멀리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선배들의 조언입니다. 같은 교회의 성도나 친한 친구와 이해관계를 띤 사업을 하면 결국은 잘못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실패했다고 패배의식이나 절망감을 가지지 마십시오. 이런 실패와 아픔을 통해 인생을 배우고 사업을 배우며 실패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을 감사하십시오.

성도님께 'G선상의 아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G선상의 아리아'는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제3번> 가운데 두 번째 곡인 '에어(아리아)'입니다. 이 곡은 19세기의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 빌 헬미가 G선만으로 연주할 수 있도록 편곡한 것입니다. G선은 바이올린의 네 현 가운데 가장 두꺼운 현을 말합니다. 즉, 'G선상의

인생의 마지막 남은 G선은 하나님 향한 믿음

아리아'는 바이올린의 낮은 음을 내는 G선만을 이용해서 연주하도록 된 독주곡입니다. 멜로디가 부드럽고 무척 아름답습니다. 이 음악을 듣고 있으면 스스로 눈이 감길 만큼 고요하고 편안해져서 불면증 치료 음악 중 첫 번째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G선상의 아리아'가 세상에 나오기 훨씬 전에 G선만으로 바이올린을 연주해 유명해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탈리아의 천재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가 주인공입니다. 그가 어느 날 음악 애호가들이 모인 모임에서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연주 도중에 줄(string)이 하나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파가니니는 아랑곳 하지 않고 남은 세 줄을 가지고 태연하게 계속 연주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또 한 줄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조금 가니니가 또 한 줄이 끊어집니다. 이젠 줄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니다. 청중들이 생각할 때 "오늘 연주회는 파가니니에게 최고의 불행한 연주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파가니니는 청중들을 바라보고 잠시 음악을 멈추더니 그 남은 한 줄을 가지고 완벽한 음악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불행한 사건이 오히려 그를 더욱 유명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느 때에 성도님과 마찬가지로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줄이 끊어져 나갈 것입니다. 물질의 줄이 끊어질 수도 있고 가졌던 명예의 줄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남편이나 아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이별의 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의지했던 모든 줄들이 다 끊어지고 가장 낮은 G선만 남았을지라도 우리는 G선상의 아리아 같은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G선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남은 생명선입니다. 이 믿음만 있다면 이 세상의 의지하는 모든 선들이 끊어져 버릴지라도 절망 중에서도 아름다운 인생 음악을 창출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의 줄로 아름다운 인생을 노래한 사람이 바로 구약의 아브라함이요 요셉이요 다윗이요 다니엘입니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2016년 5월 졸업식

- 1. 졸업식(Commencement Ceremony)**
일시: 2016년 5월 7일(토) 오전 9시
장소: Manahan Orthopaedic Capital Center (그레이스 대학 캠퍼스 내)
- 2. 졸업 논문 발표**
일시: 2016년 5월 5일(목) 오전 9시
장소: William Male Center(신학교 건물)
- 3. 총장주관 만찬(President's Luncheon)**
일시: 2016년 5월 6일(금) 12:00-1:30 pm (졸업식 리허설 후)
장소: Westminster Hall(웨스트 민스터 홀)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서아프리카의 알룬카(YALUNKA)



4개 국가에 거주하는 4개 알룬카족의 통합 과일. 알룬카족은 푸타잘론(Futa Jallon 또는 Fouta Djallon)이라는 서아프리카 산악지대의 원주민 중 하나인 만딩고족(Mandingo)의 일파다. 푸타잘론은 감비아, 니제르, 세네갈 강의 발원지다. 알룬카족은 디알론크(Diallonke) 또는 잘론크(Jallonke)로도 불리는데, 문자적인 의미는 "잘론(산악)의 원주민"이란 뜻이다. 18세기에 많은 알

룬카족이 이 지역의 또 하나의 종족인 풀라니족(Fulani)에 의해서 푸카 잘론에서 쫓겨나 흩어졌다. 오늘날 알룬카족은 약 20만 명에 이르며, 주로 기니에 살고 있다. 일부는 세네갈, 말리의 남서부, 시에라리온의 북동부 지역에도 살고 있다. 그들의 언어는 알룬카어로, 니제르-콩고 어계의 만딩고어 지파에 속한다. 알룬카족은 또 다른 만딩고어인 소소어를 말하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쉽게 이루어진다. 알룬카족은 자신들을 소소족(Soso)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어떤 학자들은 이 두 종족을 동일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알룬카 지역에 키가 높은 풀이 있는 반면 나무는 적고, 일부에는 수풀 지역도 있

다. 또 그 지역은 언덕지역으로서 대부분이 해발 1000-2000 피트에 이른다.

삶의 모습 대부분의 알룬카 정착촌은 언덕 사이의 계곡에 위치해있다. 1950년대 이후, 많은 알룬카족들이 프리타운과 같은 도시로 이주해 임시노동자가 됐다. 최근에 풀라니족과 만딩고족 많은 수가 알룬카 지역으로 옮겨와, 이곳은 다문화 환경을 만들고 있다. 알룬카족은 주로 자급적인 농업을 하며, 쌀과 수수 등이 주요 작물이다. 땅콩, 고구마, 옥수수, 콩도 또한 재배한다. 닭, 소, 양과 염소도 기르며, 염소와 소와 같은 가축은 대단히 중요하며, 결혼 시에 처가에 지불하는 대가(bride-price)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축들은 또 경제적 교환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우유를 얻는데 쓰인다.

가축 치기는 아이들이 하는 일이다. 여자들은 우유를 짜고, 버터를 만들며, 남자를 도와 농사일도 일부 한다. 꿀도 또 하나의 중요한 필수품이다. 나무에다 커다란 물통을 걸어놓음으로써 꿀을 채집하는데, 벌은 이 물통을 벌통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매년 4-6갤런의 꿀이 하나의 물통에서 채집된다. 알룬카족은 작은 마을보다는 대규모 정착촌과 촌락에 사는 것을 더 선호한다. 큰 촌락들 중 다수가 18세기 이후로 아직도 그들의 현재 거주지에 남아있다. 알룬카 사회는 기본적으로 가부장사회이며, 가족의 전형적인 구성원은 한 남자와 아내(들), 미혼 자녀들로 구성된다. 가족은 알룬카족에게 중요한 사회단위가 된다. 대가족(Extended households)은 돌이상의 가족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도 핵가족과 함께 존재하고 있으며 그보다 더 큰 대가족(extended family compound)을 형성하기도

한다. 알룬카족은 둥근 모양의 오두막에 살며, 여기에는 벽돌과 짚으로 엮은 원추 모양의 지붕이 있다. 촌락 내부에는 오두막들이 광장 주변으로 집단을 이루며, 다시 그 주변에는 울타리가 쳐져있다. 일부다처제가 일반적인 관습이다. 이슬람법에 따라 남자는 4명의 여자까지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첫아내는 나머지 아내보다 우월한 권위를 가진다. 남편은 아내들에 대해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며, 그들은 부양할 책임이 있다. 필요할 때는 처가 식구들도 또한 돕는다.

신앙 알룬카족의 99%가 무슬림이다. 그들은 이슬람의 종교적 가르침을 대부분 따르고 있으며 제사와 절기를 지키지만, 이슬람 이전의 신앙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예컨대, "니에나"(N'iena)라고 하는 "자연의 영"을 믿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제물로 바친다. 어떤 니에나는

선한 영으로서 쌀 생산과 여자의 잉태를 돕지만, 어떤 것은 악령으로서 숲 속에 살며 아이들을 납치해간다고 믿는다. 알룬카족은 또한 마녀가 동물로 둔갑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도 한다고 믿는다. 어떤 것은 희생자의 집에 저주를 퍼부음으로써 작물을 황폐화시키기도 한다고 믿는다. 예언자나 주술사가 특별한 제사를 지냄으로써, 농토와 가정에서 마녀와 사악한 니에나를 쫓아낼 수 있다고 믿는다.

필요로 하는 것들 알룬카족은 자기들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의 일부를 가지고 있으며 사역하는 선교단체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슬람에 대한 헌신과 박해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기독교로 개종하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노스캐롤라이나, 성소수자 차별 제정 법무부 고소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정부가 9일 성(性)소수자 차별법에 제동을 걸고 나선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공식으로 제기했다.



팻 매크로리(공화) 주지사는 이날 노스캐롤라이나 물리 연방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법무부의 입장은 근거도 없고 노골적인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매크로리 주지사는 특히 "노스캐롤라이나에 특정 입장을 강제하는 법무부의 노력은 미 의회의 의도와 완전히 배치되는 방식으로, 또 수십 년간의 법률적 해석도 무시하는 그런 방식으로 오랫동안 지속돼 온 연방 시무권법을 일방적으로 수정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은 최근 매크로리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성소수자 차별 논란에 휩싸인 노스캐롤라이나 정부의 법률 'HB2(House Bill 2)가 시민권법(Civil Rights Act)을 위반한 것이라며 "노스캐롤라이나 주와 주지사가 트랜스젠더 주 공무원들을 차별하고 그들의 권리에 반하는 양식 또는 관행에 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64년 제정된 시민권법은 인종과 민족, 출신 국가, 종교, 성별 등에 따른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또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계열 산하 17개 대학에도 해당법이 성별로 교육에서 차별당하지 않을 시민권을 침해한다고 공격해 이들 주립대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금 삭감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무부의 제동에 맞서 노스캐롤라이나 주 정부가 공식으로 법적 대응을 하고 나선에 따라 민주당 연방 정부와 공화당 주 정부 간의 지루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당시 임명된 테리 보일 연방판사가 다루게 된다.

매크로리 주지사는 앞서 지난 3월 주내 모든 지방 자치단체의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례 제정을 금지하고 인종·성차별과 관련한 소송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해 전국적 논란을 야기했다. 이 법은 성전환자나 출생증명서상의 성별과 다른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록스타 브루스 스프링스틴(66)과 비틀스의 드러머였던 링고 스타(75)가 노스캐롤라이나 공영을 취소하고 온라인 결제 업체 페이팔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철회한 데 이어 미국프로농구(NBA) 커미셔너(총재)인 아담 실버가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 열린 예정인 2017년 올스타전 개최 변경을 추진하는 등 현재 노스캐롤라이나 주 정부에 대한 전방위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에 처해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이들 법은 어느 정도는 정치적 요구에 의해, 또 부분적으로는 일부 사람들의 강한 (성소수자 반대)감정에 의해 추동된 측면이 있는데, 나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그 법들은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법들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동성결혼' 극력 반대 앨라배마주 대법원장 직무 정지

지난해 미국 연방 대법원의 역사적인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에 극력 반대해 온 로이 무어 미국 앨라배마 주 대법원장 직무 정지당했다.



법관의 윤리와 비행 등을 조사하는 앨라배마 주 사법법원의 판단에 따라 무어 대법원장은 생애 두 번째로 대법원장 직에서 해임될 수 있다고 미국 언론이 7일 보도했다.

앨라배마 법관 조사위원회는 전날 무어 대법원장이 명백한 연방법인 동성결혼 합법 결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앨라배마 주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권한을

남용했다며 6가지 법관 윤리 위반 혐의를 적용해 그를 사법법원에 고소했다. 고소와 함께 무어 대법원장의 직무는 즉각 정지됐다.

보수 기독교 신념을 지닌 무어 대법원장은 올해 1월 6일 산하 결혼 공중 업무를 처리하는 판사들에게 결혼을 이성 간의 결합으로 명시한 앨라배마 주 법을 지킬 '각료의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행정 명령을 발동해 동성결혼 증명서 발급을 봉쇄했다. 법관 조사위원회는 이 명령을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거스르는 것이 자연방향을 따른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법관 조사위원회에 무어 대법원장을 제소한 인권단체인 남부민법센터(SPLC)는 "무어 대법원장이 68명의 공중 판사에게 연방법을 어기라고 지시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밝혔다.

무어 대법원장은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법관 조사위원회가 동성애자, 양성애자, 복성 도착자는 물론 이들을 지지하는 단체의 말을 들으려고 선출된 사람들 같다"면서 "끝까지 싸워 반드시 이기겠다"며 성(性) 소수자와의 일전을 불사했다.

판사, 변호사, 일부 지방지로 이뤄진 사법법원은 무어 대법원장의 법관 윤리 위반 혐의를 심리해 해임 여부를 결정한다. 무어 대법원장은 지난 2003년 주 법원 청사 앞에 세워진 십계명 비석을 치우라는 연방법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가 사법법원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해임됐다. 그는 9년 후 열린 2012년 선거에서 승리해 복직했다.

미 여고생들 '성전환자 교내 화장실 혼용 안돼' 집단소송

미국 시카고 인근 3개 도시 5개 고등학교 여학생과 학부모 130여 명이 성전환자들에게 교내 화장실과 탈의실 선택권을 부여한 지역 교육청 방침에 반발해 연방 교육부와 법무부, 주 교육당국, 해당 교육청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5일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 최대 고교학군인 211지구 교육청 여고생 63명과 학부모 73명은 "성전환자의 여성용 화장실·탈의실 출입 허용으로 여학생들의 사생활 보호권과 안전이 무시됐다"며 전날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는 미국 교육장관 존 킹, 법무장관 로레타 린치 등이 피고로 명시돼 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1972년 공립학교와 대학 내 성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공포된 개정 교육법 제9조를 연방 교육부가 부정확하게 해석하고 불법적인 재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미국 교육부는 지난해 "성별과 성 정체성은 생물학적 성(性)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며 "성 정체성에 따라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원고 측 소송 대리를 받은 '자유수호연맹'(ADF) 소속 매튜 샤프 변호사는 "개정 교육법 제9조는 성 정체성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성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면서 "어떤 정부기관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연방 법의 의미를 일방적으로 재정의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교육부가 헌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실제로 최소 5개 연방법원과 주법원이 교육부의 개정 교육법 제 9조 해석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원고 측은 211지구 교육청이 생물학적 성별에 반대되는 화장실·탈의실 이용을 허용키로 한 방침을 철회하길 바라고 있다. 이들은 또 재판부에 해당 교육청의 방침을 불법적이고 헌법에 반하는 일로 명시해 줄 것과 연방 교육부가 '성 정체성'을 '성'에 대한 정의로 사용하는 것을 중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소송은 211지구에 속한 프랜드고등학교의 성전환 학생이 여학생 탈의실 이용을 거부당하고 교육부 민권부에 고발장을 내면서 촉발됐다. 이 학생은 학교 측이 앞서 여학생 화장실·탈의실 이용을 허용키로

했었으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교육부 민권국은 2011지구가 개정 교육법 제9조를 위반했다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연방 지원금을 박탈하고 제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해당 학교는 성전환 학생을 위한 개인 탈의실을 만들었으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트럼프, 323일 만에 공화 경선판 안전정리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이 4일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



공화당 경선 판세가 일찌감치 압도적 1위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로 굳어진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경쟁자였던 존 케이시 오하이오 주지사가 이날 오후 경선 중단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케이시 주지사는 오하이오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이제 경선을 접는다"면서 그동안 고생한 선거 참모들과 지지자들, 그리고 유세 과정에서 만난 모든 사람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선거를 중단하면서 나는 신이 나의 앞길을 보여주고 인생의 목적을 달성할 길을 보여줄 것이라는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케이시 주지사는 기자회견 도중 감정에 북받치는 듯 울컥하는 듯 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전날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이 경선을 포기한 데 이어 케이시 주지사까지 하차하면서 1년 가까이 이어 온 공화당 경선 레이스는 막을 내리고 트럼프가 사실상 대선후보로 정해졌다.

트럼프로서는 지난해 6월 16일 대선 출마 선언 이후 323일 만에 16명의 경쟁자들과 차례로 꺾으면서 경선판을 완전히 정리한 셈이다. 라인스 프리버스 공화당 전국위원회(RNC) 위원장도 전날 트위터에서 "트럼프가 사실상 당 대선후보"라고 선언한 상태다.

퓨리서치 '미국인 절반 트럼프의 고립주의'에 공감

미국인의 절반가량이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의 대외정책에 공감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이 더 이상의 대외 개입을 줄이고 국내로 눈을 돌리자는 트럼프의 '신(新) 고립주의적' 시각이 미국인들 사이에 팽배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향후 미국 대외정책 방향의 변화가 주목된다.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는 지난달 12일부터 19일까지 미국 성인남녀 2천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7%가 미국은 자국 문제에 신경 쓰고 다른 나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비해 미국이 다른 나라들이 문제를 해결하게끔 도와야 한다는 응답은 37%에 그쳤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트럼프가 최근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방위비를 거론하며 "적정 방위비를 내거나 아니면 스스로 방어하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 시각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시각은 보수층에서 특히 높았다. 공화당 지지자의 62%가 미국이 자국 문제에만 신경 써야 한다고 답변했다. 같은 답변을 내놓은 민주당 지지자는 47%였다. 전체 응답자의 41%는 미국이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밝혔고 28%는 적정수준, 27%는 너무 적은 수준이라고 답변했다.

군사·안보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도 고립주의적 시각이 투영됐다. 응답자의 49%는 미국의 대외 경제 개입이 미국 내 일자리를 빼앗고 임금을 낮추고 있다는 이유로 좋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외 경제 개입이 새로운 시장 창출과 성장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좋은 것이라고 답변한 응답은 5%포인트 낮은 44%였다.

특히 공화당 지지자들은 55%가 대외경제 개입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같은 답변을 한 민주당 지지자들은 47%였다.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대외경제 개입이 미국의 지역경제를 피해를 만든 주범이라고 공격하는 일부 대선주자들의 주장이 일정한 효용을 얻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여론 흐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미 목회자 3분의 2가 '환난전 휴거' 안 믿어

미국교회 목회자 3분의 2가 '휴거'를 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거(擄擄·rapture)란 예수께서 재림할 때 지상의 신자들이 하늘로 들려 올려진다는 이론으로 통상 '환난전' 휴거를 지칭한다. 휴거 이후 대한민국이 닥쳐온다는 내용이다.



미국의 설문조사 기관인 라이프웨이리서치는 최근 1000명의 미국교회 담임목사를 대상으로 '언제 휴거가 일어난 것인가'를 물었다. 응답자의 36%가 '대한민국 이전'이라고 말해 '환난전 휴거'를 인정했다.

그러나 25%는 '일어나지 않는다', 18%는 '대한민국 후', 4%는 '진노 전' 4%는 '진노 중', 1%는 '이미 이루어짐', 8%는 '모른다' 등으로 응답해 목회자의 3분의 1만 '환난전 휴거'를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거는 종말론 견해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대중적으로 알려진 '환난전' 휴거설은 그리스도의 공중재림→믿는 자들의 휴거→대한민국→그리스도와 함께 지상 재림→천년왕국 도래 순으로 전개된다. 이는 '세대주의' 종말론 신학의 견해로, 재림이 두 번 발생하는 등 이견이 많아 신학계에서는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반면 '역사적 전천년주의(미래에 그리스도가 1000년간 세상을 통치한다)'나 '무천년주의(천년왕국은 없으며 그리스도가 이미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생각을 통치하고 있음)'는 '환난 후' 휴거를 인정한다. 교회가 환난을 통과하고 그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휴거된다는 입장이다. 미국 신학계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의 70%, 세대주의의 20%, 무천년주의의 10% 정도의 지지도 분포를 보인다.

또 목회자들의 36%가 휴거가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응답한 목회자들의 비중은 교단별로 루터교(60%), 감리교(48%), 장로교·개혁교단(49%), 침례교(6%), 오순절(1%) 등의 순으로 높았다(복수 응답).

목회자들의 신학교육 정도에 따라도 휴거에 대한 관심이 달랐다. '환난전 휴거가 없다'고 응답한 목회자 중 33%는 석사학위, 29%는 박사학위 소지자였다. 반면 대학 학위가 없는 목회자의 60%, 석사학위자의 26%가 환난전 휴거를 믿고 있었다.

휴거와 관련된 구절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17절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 구절은 '환난전'이 아니라 '환난 후' 휴거를 설명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역사적 전천년주의와 무천년주의는 환난 후 휴거를 통해 재림하는 주님과 공중에서 만나 다시 땅으로 내려온다고 해석한다.

대표적 복음주의 신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 랭햄파트너십 대표는 "이 구절로 휴거를 정당화하는 것은 성경 문맥을 고려하지 않은 오해"라며 "문지도 따지지 않고 받아들여지는 대중적 기독교의 전행"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휴거는 미국의 경우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책과 영화 등이 인기를 끌면서 관심을 모았다. 휴거의 때를 계산하기 위한 '휴거 시계'라는 웹사이트도 있을 정도다. 왜곡된 휴거설은 이단 사иб비 종파의 단골 메뉴로 등장한다. 한국에서는 1992년 다미선교회가 구체적인 휴거 날짜를 제시하며 소동을 일으켰고, 지난해에도 특정일에 휴거가 일어난다며 일부에서 소란을 피운 적이 있었다.

한편 설문조사에서는 '적그리스도'(요일2:18)의 출현을 묻는 질문도 던졌다. 49%의 목회자들이 '적그리스도가 미래에 나타날 것'이라고 응답했다. 12%는 "인간 형태의 적그리스도는 없다"를, 14%는 "악의 의인화되어 나타날 것"이라 응답했다. 7%의 목회자들은 "적그리스도는 제도나 기관"이라고 응답했다. 6%는 "적그리스도는 지금 존재한다"고 답했다.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SEED선교회 연구실장)

[편집자주] 본지는 선교사 파송국 세계 2위를 달리고 있는 한국 교회의 선교를 돌아보면서 1903년 하와이 이민선에 탑승했던 홍승하 첫 한인 선교사부터 해방 전 마지막으로 파송됐던 방지일 선교사에 대해 연재한다. 필자 손상웅 목사는 SEED선교회 연구실장과 Midwest University 선교학 교수를 역임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장신대학교(대학원),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 한국 최초 선교사 홍승하

사역의 시작

홍승하(사진)는 1863년 8월 22일 경기도 남양군 영흥도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한학을 공부했고 일본으로 건너가 무관학교를 수학한 후 구국 운동에 힘썼다고 알려져 있다. 내한 첫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였던 헨리 아펜젤러 목사와 교분을 가졌던 홍승하는 조선 서부지방 감리사이자 인천 용동교회(현 내리교회) 담임목사였던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 조지 존스 목사에게서 1901년 3월 세례를 받았다. 그 후 홍승하는 고향 남양에 내려가 열성으로 전도하였다. 홍승하가 펼친 전도의 열심이

인정되어

1901년 남양교회의 최초 속장이 된다. 홍승하는 그의 동생 홍승문과 더불어 축사와 신유의 은사를 통해 영흥과 선감도까지 전도의 불길을 일으켰다. 신학 월보 1901년 10월호에는 홍승하의 결실을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남양 속장 홍승하가 전도하여 교회 일을 힘써 보시는데 일년 동안 일곱 교회를 일으키시니 남양읍, 양철이, 포막, 매화동, 용두, 영



흥심, 선감섬이다. 그 외의 여러 섬과 촌은 일일이 셀 수 없으니 일곱 교회는 특별히 큰 교회가 될 여망이 있더라." 홍승하를 두고 '남양구역의 바울'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이런 홍승하를 1901년 말 최초의 권사로 추대했을 때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았을 것이다.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운 한국 최초의 기독교 지도자 양성소인 신학회 산하에 개설된 1년 과정의 '권사와 지방 전도사반'에 홍승하는 입학했다. 홍승하는 아펜젤러 선교사와 존스 선교사 등의 강의를 들으면서 1902년 5월에 본 과정을 졸업하였다. 홍승하는 그 달 10일에 새로 발착한 남양 구역

천에서 하와이로 떠날 때 그 중에 절반 가량이 내리교회 교인이었던 점을 유의해봐야 한다. 존스 선교사의 한인 사랑과 조선 교회의 미래에 대한 희망 그리고 조선의 세계화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존스 선교사의 비전에 걸맞은 지도자가 필요했다. 존스 선교사가 그의 제자



조지 H. 존스 선교사

피어스 감리사와 의논하여 1903년 11월 3일 호놀룰루에서 '한인감리교 선교회'를 조직하였다. 안정수는 개성 남부교회 교인이었다가 후에 인천 내리교회 권사였는데 하와이 첫 이민선의 통역관으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우병길은 안정수와 개성 남부교회 교인이었다가 인천으로 이주한 내리교회 교인이었다. 그달 10일에 홍승하의 인도로 호놀룰루 상가 거리로 알려진 리버 거리와 호텔 거리가 만나는 곳에 한 주택을 빌려 첫 공식 예배를 드렸다. 본 한인감리교 선교회는 호놀룰루교회로 불렸는데 현 하와이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의 모체가 된다. 1904년에 작성된

지 일에 해당하였다. 그리고 한인 교인 수는 하와이 지역의 전체 감리교인수인 945명 중 64%를 차지했는데 반해 일본인 교인수는 276명, 백인 교인수는 64명에 그쳤다. 그런데 1903년 이후 1905년까지 하와이 군도에 흩어진 한인 이민자 수는 65개 선박을 타고 이동한 총 7,226명이었다. 한인 기도처는 부모와 고향을 떠난 한인들에게 이국생활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공간이었고, 더 나아가 정착과 취업 그리고 교육 등의 정보교환의 공간으로도 활용되었다. '포화한인교보'가 1904년 11월에 발간되었다. '포화한인교보'는 월간 교회소식지이었는데 등사

구국운동가에서 하나님 전도자로... 세례 받고 1년간 7교회 세워
첫 해외선교사로 하와이 이민선 탑승...신민회, 선교회 조직
예배당 건축 후 귀국, 복음사역 외 금주금연 등 문화사역 앞장

인 홍승하를 선교사로 파송한 이유가 되고도 남는다.

하와이 사역

하와이에 도착한 홍승하의 사역을 살필 차례다. 홍승하의 첫 사역은 신민회의 조직이다. 조금은 의아하지만 긴급하게 필요했던 사항이었다. 그가 이교담, 우병길(운병구), 조지 H. 존스 선교사 안정수, 박윤섭 등과 함께 1903년 8월 7일에 신민회를 조직하였고, 그 목적은 한인들의 단합과 보호 곧 애국이었다. 그는 신민회의 회장으로 추대 받았다. 신민회 창설 3개월 후인 1903년 11월 3일에 홍승하는 '한인감리교 선교회'를 창립한다. 안정수와 우병길이 미국 북감리교의 조지 L.

호놀룰루교회의 교인 명단에는 약 20명의 교인이 적혀 있고 제일 위에 홍승하의 이름이 보인다.

홍승하는 1904년 5월부터 하와이 군도에 흩어진 한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활동을 펼쳤다. 우병길, 이교담, 임형주 등을 여러 사랑수수 농장으로 파송하여 노동하는 한인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선교 여행을 추진했다. 1904년 말 현재 14개 처에 한인 기도처를 개척하였는데 총 한인 교인 수는 402명에 이르렀다. 하와이감리교 선교부에 따르면 1905년 현재 한인 교인 수가 605명이었고, 이 숫자는 하와이 한인 총수의 삼분



뒷줄 왼쪽 첫째가 홍승하다.

판으로 발간하여 각 농장에 흩어져 농사를 짓는 한인 동포들에게 배포하여 한인의 교제를 돕고 영적 위로에 박차를 가했다. 이러한 교회 활동은 불신자 한인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기독교를 받아들일 만한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16면으로 계속)

그게 그런 뜻이었어? - 성경의 압축파일 풀기 (33)

이진희 목사
(달라스 웨슬리연합감리교회 담임)



하나님의 심방

베들레헴에 10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 나오미의 가정은 그 기근을 피해 모압 땅으로 피난을 갔다. 그러나 그 힘든 가운데서도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잘 참고 견딘 사람들이 있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다. 그랬더니 마침내 어떤 일이 생겼는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룻 1:6). 마침내 기근이 끝나게 된 것이

다. 다했던 하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번역은 너무 미묘하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돌보다'는 단어가 'paqad'로 되어 있다. 이 말은 '방문하다'라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기 위해 방문하셨던 것이다.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와 "자기 백성을 방문하셨다"는 뉘앙스가 다르지 않은가?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창50:24. 개역개정). 여기에서도 '돌보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paqad로 방문하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이집트에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실 것이라는 뜻이다. 요셉의 예언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가셨다"(출4:31, 13:19). 그리고 출애굽의 대 역사를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창 21:1, 개역개정).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도 paqad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방문'하셨던 것이다. 하나님이 사라를 심방하셨을 때 태의 문이 열리게 되고 이삭이 태어나게 된 것이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자 하나님께 바쳤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3남 2녀를 더 낳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삼상2: 21). 여기에서 '돌보다'라는 단어는 paqad로 '방문하다'라는 뜻이다. 하나님이 한나를 심방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후로 3남 2녀를 더 낳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 성경에서는 "방문하다, 심

방하다, 찾아오시다"라는 의미를 가진 paqad를 '돌보다'라고 번역함으로써 원어의 의미를 많이 퇴색시키고 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심방하셨을 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베들레헴에 심방 가셨을 때 기근이 끝나게 되고, 사라와 한나에게 심방 가셨을 때 태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에게 심방 오신 것이다. 크리스마스는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심방 오신 날이다! 몇 만 명 모이는 교회의 목사님에게서 들은 이야기다. 그분이 심방을 가면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한다. 그런 교회에서는 5년, 10년이 지나도 목사님과 인사 한번 못하고 손 한번 잡아보지 못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그런데 친히 집에 심방까지 와주시 황송한 것이다. 그래서 마치 예수

님이 심방오신 것처럼 그렇게 심방을 받는다고 한다. 어떤 목사님이 교인과 오해가 있어서 그것을 풀기 위해 그 집에 찾아가셨다. 그런데 목사가 온 것을 알면서도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 밖에서 한참을 기다렸다. 그런데 얼마 후 경찰이 왔다. 그 교인이 경찰에 모르는 사람이 문 앞에 와 있다고 신고를 한 것이다. 다행히도 그분 남편이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목사라고 이야기를 해주어서 연행되지 않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한다. 예수님도 2천년 전에 이 세상에 심방 오셨을 때 그런 수모와 모욕을 당하셨다. "참 밧골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요1:9, 11). jinlee1004@yahoo.com

장년부 전임 부목사를 청빙합니다

본 교회는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위치한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KAPC)소속교회입니다

- 청빙 인원: 1분
- 자격: 1. 정규 신학교를 졸업하신 분
2. 목회에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분
3.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목회의 열정이 있는 분
4.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분
- 제출서류: 1. 이력서 및 자기 소개서 2. 목회의 비전
3. 함께 목회하셨던 목회자 2분 이상의 추천서
4. 최근 6개월 이내 설교 2회분의 CD나 유튜브 등의 동영상
- 제출서류 마감일: 2016년 6월10일
- 제출처: 이메일: mrjohnkoh@gmail.com
우편: Korean Emmanuel Presbyterian Church
4435 Fortran Dr. San Jose, CA 95134
- 문의: 고정훈 장로 408-315-2606, 박용갑 장로 408-807-6453
- 기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장로교회
담임목사 : 손 원 배

Korean Emmanuel Presbyterian Church www.kepc.org
4435 Fortran Dr. San Jose, CA 95134 Tel: 408.263.5100

리더십 코멘터리 (16)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십학자)

탁월한 리더를 양성하는 리더십시스템의 힘

현대인들은 지나치게 한 사람의 리더십만을 바라본다. 영웅을 탄생시켜 그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고 숭배하기를 원하는 것이 현대문화가 가진 특성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명의 탁월한 리더보다도 그 리더를 만들어낸 교육시스템을 생각해야 한다. 탁월한 리더를 탄생시킨 리더십 교육시스템을 연구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러한 탁월한 리더들을 키워낼 수 있는 것이다.

군사리더십학교

세계 2차 대전 때 활약했던 사막의 여우 롬멜 장군(Erwin Johannes Eugen Rommel)이 있다. 탁월한 리더로서의 그의 존재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한 바 있지만 그를 키워낸 독일군 작전참모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 당시의 군사작전은 단순히 부대가 이동하는 것까지도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총사령관의 명령을 받아야 했다. 이 당시 독일군은 2백명 정도의 탁월한 젊은 엘리트 장교들을 모아서 '독일군 작전참모부 학교'를 만들었다. 군사리더십학교에서는 전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세밀히 가르쳤다. 탁월한 젊은 엘리트 장교들은 2년간의 엘리트 수업을 마친 후 독자적인 군사명령권을 갖게 된다. 엘리트 리더를 교육하고 양성하는 작전참모부 학교를 가진 독일군 50만명과 리더들이 제대로 된 리더십훈련을 받지 못한 프랑스 연합군 1백만명이 전쟁을 했지만 연합군은 독일군의 상대도 되지 못했다. 그만큼 군사리더십학교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은 독일군은 탁월한 리더를 가진 리더 층이 두터웠다.

리더십 개발 센터

현재에도 독일군 작전참모부 학교가 존재한다. 세계적인 기업 제너럴일렉트릭(GE)의 인재 사관 학교라고 불리는 존 F. 웰치 리더십 개발 센터(John F. Welch Leadership Development Center)가 바로 그것이다. 흔히 크로톤빌(Crotonville) 연수원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미국 최초의 기업 교육기관이다. GE는 1956년부터 이곳을 임원 리더십 교육의 중심지로 삼아 왔다. 목표관리(MBO), 소액(SWOT) 분석, 전략계획 등 GE가 개발한 경영기법들은 모두 크로톤빌에서 출발했다. 이것이 경영 혁신에 대한 이야기에서 크로톤빌 연수원이 빠짐없이 등장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잭 웰치 전 GE 회장의 말이 기억난다. "나의 시간의 75%를 핵심 인재를 찾고, 채용하고, 배치하고, 평가하고, 보상하고, 내보내는 데 썼다." 완벽한 리더십을 가지고 다른 리더의 육성에 최선을 다하는 리더, 이것이 GE가 세계 최고 기업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비결이었다.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원한다면, '독일군 작전참모부 학교', '크로톤빌 연수원'을 만들고 영향력 있는 리더를 만드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가 한 명의 인기 있는 설교자를 우상화하는 것보다 계속해서 탁월한 리더들을 키워내는 리더십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

리더십연구의 범위

리더십 연구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과학 등 여러 가지 분야를 함께 생각해야 한다. 목회자를 포함한 교회 지도자들도 폭넓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에서는 군사전문가, 기업가, 정치인, 사회교육계, 종교계 등 다섯 가지 분야에 대

배를 이끌고 목적지에 도달해야 하는 능력은 조화와 균형의 힘 예리한 지성과 따뜻한 마음, 역경을 이겨내는 힘의 요소 있어야

한 리더십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원리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검증된 리서치들이 매년 많은 데이터로 제공되고 있다. 오래전에는 교회가 사회에 모든 리더십을 제공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은 초대교회를 핍박했지만 무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교회를 핍박하지는 않지만 우습게 보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목회자들과 교회지도자들이 사회 각 분야, 인성 각 분야를 공부하고 연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지하고 영향력 없는 교회지도자들이 비난을 받는 것이다.

심리학자이면서 미국 공군사관학교의 리더십 강사인 리처드 휴즈는 리더십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리더십이란 한 조직체에 끼치는 영향력으로써, 그 단체로 하여금 하나의 목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이다. 이것은 그 조직체의 모든 멤버들이 공유하는 것으로서, 어떤 특정한 위치에 있는 한 사람만의 독점물이 아니라, 따르는 사람들(Follower)도 분명히 리더십의 중요한 한 일부이다." 리더십은 배를 이끌고 목적지에 도달해야 하는 능력이다. 리더는 항해를 하면서 거친 파도와 폭풍도 만나고, 암초를 무사히 통과해야 하는데, 선장의 중요성 못지않게 따르는 사람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현대리더가 갖추어야 할 3가지 요소

현대사회는 앞장선 리더, 책임진 리더만 바라보고 있다. 따르는 사람들도 잘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상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리더와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상황이 조화를 이루어야 영향

력 있는 리더십이 완성되는 것이다. 대통령 한 사람이 잘해서 나라경제의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 일등국가가 되어 국민들이 풍요를 누리고 영향력 있는 초일류국가 되기 위해선 대통령과 국민 그리고 세계정세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국민 각자가 자기의무를 지키지 않고, 권리주장만 하면서 제 할 일을 다 안하고, 또한 세계정세가 충분한 환경조성을 해주지 못한다면 아무리 하늘에서 내린 리더라 해도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다.

엘리트와 리더와의 차이는 이것이다. 엘리트는 A를 택하기 위해 B를 버리는 사람인 반면, 리더는 A와 B를 잘 조화시키는 사람이다. 목회자가 신학적으로 철저한 설교를 하면 은혜가 없다고 한다. 반면에 은혜 충만, 복음 충만한 설교를 추구하면 신학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탁월한 목회자들에게는 은혜와 신학의 밸런스(balance)가 있다. 그들의 설교는 재미도 있고 깊이도 있다. 이것이 밸런스의 힘이다.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조화와 균형의 힘'이다. 물질문명은 급격하게 변하고 역사는 극에서 극으로 흐르지만 교회는 하나라도 포기하면 안 된다. 조화를 시켜 나가야 한다.

1) 제1요소: 예리한 지성

리더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영성이다. 바ই블은 영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하라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산6:5, Love the Lord Your God

will all your heart, mind, and strength). 'mind'는 지성이고 영성은 다시 말해 거룩한 지성(Sanctified Intelligence)이다. 세상 모든 학문에 대해 크고 예리하게 성경적인 시각으로 분석하고 고민하는 능력이 리더에게 필요하다. 현대를 살아가는 리더에게는 학벌이 문제가 아니라 예리한 지성이 필요하다.

2) 제2요소: 따뜻한 마음

하버드대학교의 대니얼 골만이 EQ(Emotional Quotient)라는 저서를 썼다. 감성지수의 구성요소는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힘, 자기보다 못한 상대를 풀어주는 동정심, 일에 대한 무서운 열정, 사랑, 인내, 부지런함, 양보, 정직성, 창조력 등이다. 이러한 것들이 한데 모여 감성지수를 만든다. EQ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지수이다. 예수께서 당시 리더들을 질책하셨는데 그 이유는 율법은 있으나 사랑은 없고, 정죄는 있으나 은혜가 없기 때문이었다. 현대의 영향력 있는 리더에게는 따뜻한 마음이 필요하다.

3) 제3요소: 역경을 이겨 내는 힘

폴 G. 스토츠라는 학자는 인생에서 장애물을 만난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장애물을 만나면 도망가는 사람(Quitter), 장애물을 만나면 기다리는 사람(Camper), 장애물을 만나면 장애물을 뛰어 넘는 사람(Climber)이 바로 그것이다. 역경을 이겨 내는 힘,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리더에게 필요한 요소이다.

sondongwon@gmail.com

사·모·칼럼



장사라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의교회)

일류가족

나이 들어 갈수록 한 계절을 보내고 또 맞이하는 것에 더 많은 의미가 부여해진다. 요즘처럼 맑고 살랑대는 봄바람이면 그 바람에 몸도 마음도 푹 담그고 깨끗이 행구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5월이다! 짐은 먹었나는 남편의 전화 한마디에도 위로가 되는 소박한 날이다.

딸아이가 예배시간에 "Thank you for the family"라고 적은 감사헌금 낸 것을 들으니 가슴이 찡해지며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그렇다. 가족은 그렇게 아주 작은 일들 속에서도 울고 웃고 천국과 지옥을 넘나드는 감정이 얽힌 사람들이다. 아마 사람이 이 세상에 와서 한 가장 위대한 일은 결혼을 해서 가족을 만들어낸 일이 아닐까. 그렇다면 어찌된 일류학교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일류가족을 만들어가는 것이리라.

많은 가족이 한 집에 산다고 하지만 각자들로 살아서 서로 집안 일 외에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공통 주제가 별로 없는 것 같다. 가족은 육체적으로만이 아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함께 통하고 나누어야 진짜 가족일 텐데 말이다. 그러려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영적인 일들에 연결되어 변하고 성장하려는 꿈틀거림이 있어야 다른 가족들이 그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많은 소망이 있지 않을까.

먹고 살기 위한 쟁취에만 분주한 동물들에 비해 사람은 내면의 삶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그 내면으로 가는 길을 잃고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그래서 외면 살림은 풍성하고 화려하고 늘 새로운 것들로 넘쳐나도 내면살림은 가난하고 초라해서 그것을 감추려고 점점 외부의 삶에 더 많은 투자를 하며 사는 우리네 모습들... 그럴수록 내면은 더 많이 공허해질 텐데...

그렇게 공허해진 우리의 많은 자녀들이 오늘도 그들의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잠시 거기서 이탈하여 자칫한 기쁨과 황홀을 맛보려다 만나는 것이 게임이고 마약이고 섹스...이러다. 그래서 일류가족은 서로의 수치심과 두려움을 진짜 안아주고 내어 쫓아 주고 그런 것들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이 진짜 일류가족이 아닐까.

군림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이웃과 관계하는 것이 어렵게 되는 것 같다. 누구를 동등하게 대하려 하면 괜히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아,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또 깊은 사람 속에 잘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난다. 그래서 홀로 권위를 지키려 가족과 대화도 장난도 놀이도 못하는 대말이? 아버지들은 가족들에게 또 상처를 주고받고 함께 있어도 외로운 인생을 산다. 가족들과 함께 먹고 놀고 장난한다고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서로를 통해 평화롭게 사는 삶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가족, 이것이 이 시대의 진정 일류가족 이리라. 그렇다! 사람은 끝없이 불공평을 요구하는데... 그래서 하나님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버렸나니" 라고 하신 말씀은 어찌 사랑의 불공평의 절정을 보여준 것이 아닐까. 이 불공평의 사랑의 절정을 가족 간에 만끽할 때 죽음보다도 더 강한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오뎅이처럼 일어나 힘차게 살아갈 충분한 이유가 되리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라다. 여호와와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산33:29).

예수 믿는 가족은 행복자이다. 대장암 말기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38살 된 자매님을 방문하여 가슴이 무너지는 것같이 아팠지만 그 자매에게 담대히 말했다. "저는 우리 자매님이 하나도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살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생명이 자매님 속에서 꿈틀거리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자 '아멘' 하며 자매님은 눈물을 흘렸다. 그렇다. 받지 못한 것을 보지 말고 이미 받은 복을 보며 서로를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로 믿어주고 보여주는 것, 이것이 진정 일류가족이요 영적가족이리라.

changsamo1020@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오전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7:30 사별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혜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공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열 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오전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성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영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http://www.bethelchurch.org/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종교평화행진: 오전 10시 (한): 오전 11시 영, 권, 위: 오전 11:00 주일사별기도회: 오후 2:00 주일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살롱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일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일오전예배: 오후 9:30 대학청년부: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오전예배: 오후 8:00 주일사별기도회: 오전 10:45 주일새벽기도회: 오전 10:45 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용교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오전예배: 오후 7:00 Tel: (360)456-0191 6007 Pacific Ave. SE P.O. BOX 8358 Lacey, WA 98509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aypchurch.org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702)749-9929, Fax: (702)778-6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mychurch.org	알칸사 제자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2부예배: 오전 4: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사별: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ijhs.org	앵커리지델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사별기도회: 오후 2: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스델린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사별기도회: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사별: (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사별기도회: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주일 3부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Tel: (254)634-8705(H), (254)501-4933(C) 1000 E. Veletranz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오전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www.j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2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상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3부예배: 오전 11시 15분 수요일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8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laconmcc.org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도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청년모임: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o.org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인/터/뷰 앤솔로지 앨범 발표...찬양콘서트 차 남가주 방문

CCM 남성듀오 '사랑이야기'

20년 역사를 한 장의 앨범으로 담은 '사랑이야기' 앤솔로지 1996-2015를 발표하고 남가주 지역에 순회콘서트를 위해 방문한 CCM 남성듀오 '사랑이야기'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감성적인 가사와 아름다운 선율에 담아 노래하는 형제듀오이다.

사랑이야기 김현중 선교사(보컬 작사 연주)와 김재중 선교사(보컬 작, 편곡 연주프로듀서)는 2년 만에 LA지역을 찾았으며 그동안 뉴욕, 워싱턴, 뉴저지, 애틀랜타 등을 방문해 찬양콘서트를 해왔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를 2년 만에 다시 방문한 소감에 대해 그들은 "캘리포니아의 아름다운 날씨처럼 이곳에 올 때마다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되요. 이번에도 코너스톤교회 이종용 목사님과 순회찬양콘서트에 많은 도움을 주신 최영일 장로님 등과 교제를 나누면서 그리고 공연장에서 만나게 되는 관객 여러분들과 호흡하면서 행복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라고 대답했다.

지난 4월 27일 새생명비전교회

를 시작으로 오는 5월11일 산성교회까지 11번의 찬양콘서트를 하게 되는 사랑이야기는 콘서트나 집회 때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자신들을 통해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일어나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로 공연에 임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현중 선교사는 "이민생활에 지쳐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해요. 동생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부르는 노래를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 세상이 나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되어서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첫 곡을 부를 때 관객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저희와 함께 호흡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김재중 선교사는 "저희가 공연하기 전에 작은 힘이라도 드렸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막상 무대에서 공연하다보면 관객들의 호응으로 인해 저희가 힘

을 얻게 돼요. 참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90년과 91년 '빛과소금'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2장의 앨범을 냈던 그들은 팀 이름을 '사랑이야기'로 바꾸고 프로젝트 앨범 참여와 방송활동을 하며 틈틈이 곡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감성적 가사와 아름다운 선율에 담아 노래한다"

작업을 해오다 1996년 재(再) 데뷔 앨범인 "사랑과 평화"를 발표했으며 2003년 재발매를 하게 됐다.

이 앨범에는 '음악 이야기', '그의 손을 잡아요', '사랑과 평화의 길' 등이 수록됐는데 첫 앨범임에도 불구하고 전곡의 작사, 작곡, 편곡, 연주뿐만 아니라 셀프 프로듀싱으로 제작돼 싱어송라이터 뮤지션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줬다.

그들은 국내 정서에 잘 맞는 포크를 기반으로 팝, 락, 컨트리, 블루스가 적절히 믹스된 스타일을 추구하며 다양한 공연과 집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수의 앨범과 음반 앨범들에 참여하며 국내 CCM계의



실력 있는 남성 듀오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첫 앨범을 통해 이름을 알린 "사랑이야기"는 재능을 반복하며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제작한 2집 앨범 Beautiful을 5년 만에 발표했다. 이 앨범에는 최고의 히트곡이라고 할 수 있는 '주님의 숲'과 '이제 다시'가 수록됐는데 특별히 '주님의 숲'은 노래 안에 담긴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 발매된 '사랑이야기' 앤솔로지 1996-2015는 사랑이야기의 기존의 곡들을 다시 모은 컴필레이션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제작된 스페셜 앨범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지난 20년을 돌아보며 그동안 많이 사랑 받은 노래들과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 들어도 아름다운 숨겨진 보화와 같은 노래들을 한 장의 앨범에 담아 새로운 생명력을 갖게 한다는 의미가 있고, 둘째는 지난 시간을 정리하고 앞으로 다가올 더 많은 날들을 바라보며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작업할 때 기도와 묵상을 통해 얻어낸 영감으로 가사를 쓰고 곡을 쓰고 있는 두 선교사는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곡 쓰고 싶다고 말

했다.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곡 작업은 몇 년 안에 제작이 될 것입니다. 보통 아이들이 부르는 곡이라 해서 장르가 동요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 초등학교생들이 R&B를 한다든가 수준급 음악을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희가 작업하게 될 찬양역시 아이들이 부르는 것이지만 음악성이 있고 좋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CCM을 제작하려고 해요."

사랑이야기는 또한 찬양집회를 간절히 갈망하는 곳을 찾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찬양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음악가입니다. 그것은 관객들과 음향시스템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곳에만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찾으실 때 그리고 사역을 하실 때 두들겨서 찾아가셨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음악을 하는 사역자가 불러주는 곳에만 간다? 좋은 환경이 마련된 곳을 간다?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청한 곳도 가야 하지만 열악한 곳도 가야 합니다."

김현중 선교사와 김재중 선교사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주어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그리고 사랑이야기가 소외된 자들에게도 사랑의 찬양사역을 해야겠다며 자신들이 가진 재능을 좀더 활동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일어나라 미국이여' ...4만7천여 곳서 국가를 위한 기도의 날 연합기도회 성료

국가를 위한 기도의 날 연합기도회가 5일 오후 7시30분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열렸다.

매년 5월 첫째 주 목요일에 열리는 국가기도의 날 행사는 미국 전역 4만2천여 곳에서 치러지는데 올해는 '일어나라 미국이여(Wake up America)'라는 주제로 수도 워싱턴 DC를 비롯해 5천여 곳이 확대된 4만7천여 곳에서 열려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는 대통령과 지도자들 선출이 있는 중요한 해여서 어느 해보다도 국가와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의 불길 이 솟아올랐다.

은혜한인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미기총 전국기도연대대표 한기홍 목사의 환영사로 시작한 예배는 OC목사회 회장 객재필 목사가 기도, OC기독교평신도연합 회장 윤우경 집사가 성경봉독을 한 후, 지난해 다민족연합기도대회에 하이 라이트 영상을 감상하고 김영길 목사(감사한인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을 뒀소서(출14:15-20)'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OC교협 회장 민승기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기도회는 김준근



'일어나라 미국이여(Wake up America)'라는 주제로 열린 국가기도의 날 연합 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장로(전 자마 대표)가 나와 '하나님의 선언문(Declaration of Dependence Upon God)'을 낭독했다. 이 선언문은 2008년에 작성해 백악관과 의회, 대법원 등 다수의 지도자에게 발송한 것으로 미국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받는 국가로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국가와 국민이 되어야 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해야 함을 선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본격적으로 시작된 기도는

참석자들은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를 위해 주제를 정해 놓고 뜨겁게 기도의 불을 켜었다. 세부적으로는 △회개와 부흥 △학교와 가정 △교회와 문화, 사회 정의의 △대통령과 국가지도자들 및 선거 △청년과 차세대 부흥, 학생단체, 선교 △고국의 지도자들, 부흥, 안보, 통일 등을 위해 기도했다. 모든 행사는 OC원로목사회 회장 박승환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아주사퍼시픽대학교 2016봄학기 학위수여식이 성황리에 열렸다. 사진은 학위수여식 전날 거행된 본교 신학교 후딩세례모니에서 한인신학교졸업생들과 코리아프로그램 교수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아주사퍼시픽대학교 660명 학위수여식 한인 박사 2명 석사 22명 학사 2명 졸업

아주사퍼시픽대학교(APU 총장 존 윌레스 박사) 2016년 봄학기 대학원 학위수여식이 7일 오전 9시 본교 운동장에서 열렸다.

660여명의 졸업생들과 하객들 그리고 교수 및 학과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학위수여식은 존 윌레스 총장의 사회로 시작, 네이트 왓킨스 본교 음대교수가 기도를, 밥

고프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가 'The Corner of This Way and That Way'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했다.

이어 열린 학위수여식은 52명의 박사과정, 6명의 교육전문가 과정, 그리고 607명의 석사과정 이수자들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그중 한인 박사(목회학)가 2명, 석사(간

호학 5명, 목회학 9명, 영어교육학 1명, 교육학 2명, 사회복지학 1명, 음악연주학 4명)이다.

같은 날 오후 6시에 열린 학사와 준학사 학위수여식은 330명의 학사와 13명의 준학사를 배출했는데 2명의 한인학생이 간호학 학사를 수여받았다.

한편 학위수여식이 열리기 전날인 6일 오후 6시 본교 문선 체플에서 신학교 후딩 세례모니를 가졌다. 다음은 2016년도 봄학기 한인 학위수여자 명단이다.

△목회학 박사: 이사야, 스티븐 심 △목회학석사: 김재호, 이성준, 정기영, 정산, 감덕규, 이하영, 박종승, 윤혜경, 연성필 △간호학석사: 김찬영, 최켈리, 정도마스, 고희림, 박도영 △영어교육학석사: 정인혜 △교육학석사: 이크리스티나, 송은혜 △음악연주학석사: 김경, 이정남, 장유진, 진영환 △사회복지학 석사: 임신선, △간호학석사: 박콜라, 고케빈.

(박준호 기자)



제38회 미주총신대학교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생과 교수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명예)박사 7명, 석사 7명...총14명 미주총신대학교 제38회 학위수여식

미주총신대학교(총장 김근수 박사) 제38회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이 7일 오후 4시 본교체플에서 개최됐다.

이재석 교수의 사회로 시작한 학위수여식은 이재경 박사(음대대학장)가 기도했으며 이사장 김연도 박사가 '강하고 담대하라'(수1:3-9)

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이재석 교수(교학처장)가 학사훈고를, 김근수 총장이 학위수여와 훈사를 했으며, 졸업생 나윤희 졸업생이 특별찬양을 불렀다.

이날 행사는 김연도 박사의 축도로 마쳤다. 다음은 2016년도 졸업생 명단이다.

△목회학 박사: 유윤홍(제주목민교회 담임) △교회음악박사: 박형준 △명예기독교교육학박사: 강용구(국제라이온스협회 회장), 남상호 목사(에어인 교회 담임), 문용권 목사(천안중부교회 담임), 배봉섭 목사(내포성원교회 담임), 함광욱 목사(오사카 중앙침례교회 담임) △목회학석사: 서진상, 오아름, 강미애, 강순애, 우광일, 이재희 △교회음악석사: 나윤희.

(박준호 기자)



첫 연주회 하나님께...교회서 첫 공연 다윗의노래합창단 22일 창단 연주회

지난 1월에 성악전공 음악인들로 구성되어 창단된 전문합창단 '다윗의노래합창단'(David Song Singers, 단장 안창권 목사)이 오는 22일(주) 저녁 7시30분 윌셔와 베렌도에 위치한 임마누엘장로교회에서 제 1회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크리스천문화 창달과 문화선교의 일환으로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해 창단된 본 합창단 상임 지휘자는 송규식 음악목사, 부지휘자 여선주 선생, 피아노 반주 김유경 선생이며 현재 단원은 25명중 20명이 성악 전공자다.

상임지휘자 송규식 목사는 지난 40여 년 동안 교회음악에 종사하며

한국과 미국(남가주, 시카고 등), 캐나다(토론토), 이스라엘(예루살렘) 등에서 다양한 음악활동을 해왔으며 특별히 Jerusalem Performing Art Center에서 이스라엘 심포니와 헨델의 '메시아'를 협연한 바 있고 코스타메사 갈보리체플(척 스미스 목사) 초청으로 '메시아'를 연주한 바 있다. 부지휘자 여선주 씨는 LA 메스터코랄 단원과 LA Opera 단원으로 15년 동안 활동해오고 있다.

한편 송규식 목사는 "첫 연주회를 일반 연주회장이 아닌 교회를 선택한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말하며 "첫 연주회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와 더불어 진정한

한 Horn Mass(Kyrie, Gloria, Sanctus, Agnus Dei)로써 Latin Text를 사용하지만 독특한 한국적 색채를 담은 현대 성가다. Horn Mass의 독창자는 소프라노 여선주 씨, 메조소프라노 김승희 씨, 테너 오인석 씨, 바리톤 장상근 씨다.

제2부는 Praise Worship으로써 드라마틱한 찬양예배 형태를 가진 특별한 무대가 기대된다. 독창자로는 소프라노 양유진 씨, 메조소프라노 조지영 씨, 테너 오위영 씨, 바리톤 최승재 씨, 베이스 이사호 씨가 출연한다.

다윗의노래합창단은 비영리단체(Holy Voice Mission)로 Dr. GO, LISAA, KORUS Medical Group이 후원하고 있다.

(정리: 이성자 기자)



제30회 사랑의 마당축제가 성황리에 열렸다

총 31개 장애사역단체 참가 제30회 사랑의 마당축제 성황

'제30회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마당축제'가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워터내로우 레크리에이션에서 열렸다.

해피빌리지와 나성한인교회(담임 신동철 목사)가 주관하고 남가주 발달장애인(단장 이종희 목사)을 비롯해 31개 단체 및 교회가 참가한 이날 축제에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초청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종희 목사는 "매년 하는 행사지만 올해는 날씨도 좋아 시간에 맞춰 잘 진행됐다"고 말하며 "날씨 때문인지 차분하게 마당축제가 진행돼 감사하고 모든 교회와 단체들에게 좋은 하루 허락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동부교계 기사판



좋은씨앗교회 설립 5주년 감사 임직예배
좋은씨앗교회(담임 임용수 목사) 설립 5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임직예배가 5월 8일(주) 오후 5시 본 교회당(35-18 Linden Pl. #3Fl. Flushing)에서 열린다.

뉴욕갯세마네교회 새성전 입당감사예배
뉴욕갯세마네교회(담임 이지용 목사)가 롱아일랜드로 성전을 옮기고 5월 15일(주) 오후 5시 새성전 입당 감사예배를 드린다.

교육목사 청빙
뉴욕 베이스айд장로교회(담임 이종식 목사)에서 풀타임 교육 목사를 청빙한다.

찬양대 반주자 청빙
뉴욕한빛교회(담임 윤종훈 목사)가 1부 예배 찬양대 반주자를 찾는다.

4개주 목사회 참석...종합우승 메릴랜드

제 10회 미동부지역 한인목사회 연합체육대회

제 10회 미동부지역 한인목사회 연합체육대회가 지난 9일 뉴저지 뉴 오버벡 컨트리 파크에서 개최됐다.

뉴욕목사회, 뉴저지목사회, 필라델피아목사회, 매릴랜드목사회 등 미동부 지역의 한인목사회가 매년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뉴저지목사회가 호스트 했다.

대회 종목은 축구, 배구, 족구, 탁구 4종목으로 각 종목 결과는 다음과 같다.

△종합우승: 메릴랜드 △축구: 뉴저지 △배구: 필라델피아, 메릴랜드 공동 △족구: 필라델피아 △탁구: 뉴저지.

종합우승은 메릴랜드와 뉴저지, 필라델피아가 동점을 이뤘으나 멀리서 참석한 메릴랜드에게 우승을



미동부 한인목사회 연합 체육대회 배구 경기가 진행되고 있다.

양보했다. 지난해 종합우승한 뉴욕목사회는 올해는 한 종목도 우승하지 못했다.

한편 뉴욕목사회(회장 김영환 목사)는 지난 4일 대회 준비 및 단합을 위해 출정예배를 드린바 있다.

뉴욕예은교회(담임 김명옥 목사)에서 드린 예배는 허윤준 목사의 사회로 회장 김영환 목사 설교, 김상대 목사 축도, 신현택 목사 식사가

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영환 목사는 롬8:28을 본문으로 한 설교에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때문에 목회자들이 단합해서 교제할 때 하나님이 더 좋은 협력의 결과물을 주실 것"이라면서 "더욱 모이고 협력하는 데 힘쓰는 뉴욕목사회가 되자"고 당부했다.

뉴욕목사회가 미동부 한인목사회 체육대회 참가를 위해 출정예배를 가진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뉴욕목사회 허윤준 총무는 출정예배와 관련, "예년에는 선수 중심으로 운영되던 체육대회였다면 올해는 남녀 구분 없이 모두 단합과 친교를 더욱 중심삼아 참여하고자 출정예배를 갖게 됐다"면서, "지난해 뉴욕목사회가 1등을 해서 기뻐했는데 올해는 다른 주위 분들을 섬기는데 더 기쁨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유원정 기자)



목양장로사역컨퍼런스에서 최홍준 목사가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존경과 신뢰, 사랑 한 몸에 받는 장로...'
뉴욕장로연합회 주관 '제29차 목양장로사역컨퍼런스'

대뉴욕지구장로연합회(회장 손성대 장로)가 주관하고 국제목양사역원(원장 최홍준 목사)이 주최한 제 29차 목양장로사역컨퍼런스가 5월 3일, 4일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열렸다.

이번 컨퍼런스는 '존경과 신뢰와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장로의 본질 회복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호산나교회 원로목사이자 국제목양사역원 회장인 최홍준 목사, 프라미스교회 수석부목사이자 4/14 아동사역을 하고 있는 허연행 목사, 팻머스문화선교회 선량욱 대표, 미주 디렉터 고현권 목사, 김명섭 목사 등이 주요강사로 강단에 섰다.

김남수 목사는 "오늘 같은 시간이 잘 배운 것을 잘 활용한다면 훗날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것이라 믿는다. 교회는 목회자와 장로만 잘 화합해도 문제가 생길 일이 없다. 뉴욕장로연합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수고한 것에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첫 번째 강사인 최홍준 목사는 '장로,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라는 제목으로 목양장로사역 소개하며, 그 시대적 사명과 제자훈련의 예시

로 사랑의 교회, 호산나교회의 사례를 설명했다. 또한 목양장로 사역의 장점과 어떻게 동참시켜야 할지에 대해 담임목사의 자세, 목회자와 장로의 관계 정립에 대해 전하며, '목회자를 귀히 여기라'는 결론을 내렸다.

고현권 목사는 '교회사를 통한 장로직의 본질회복'을 주제로, 신약과 초대교회, 중세교회 그리고 종교개혁까지의 장로의 모습과 역할을 강조했다.

허연행 목사는 '다음세대를 향한 목양사역'을 주제로 강의했으며, 선량욱 대표는 '다음 세대를 위한 목양과 구체적 대안'을 주제로 다음 세대를 위한 변화, 사역 대상 알아차리기, 부흥을 위한 대안 사역 등을 제시했다. 김명섭 목사는 목양장로사역의 실제 사례와 프로그램 등을 소개했다.

9개의 주제 강의 후에는 '목양장로사역을 위한 워크샵'이 진행됐고, 참가자들은 소그룹 작성 후에 수료증을 받으며 이틀간의 일정을 마쳤다.

(기사제공: 뉴욕장로연합회)



할렐루야복음화대회 1차 준비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하나님을 감동케...' 대회 계획안 발표
할렐루야 2016뉴욕복음화대회 1차 준비기도회

뉴욕교협(회장 이종명 목사)이 주최하는 할렐루야 2016 대뉴욕복음화대회 1차 준비기도회가 10일 오전 10시30분 뉴욕예은교회(담임 김명옥 목사)에서 열렸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면!"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할렐루야 대회의 준비위원회 이만호 목사는 "이번 대회에는 '회복시켜 주옵소서'라는 표어를 내걸었다"며, "뉴욕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는 대회가 되도록 기도와 동참"을 당부했다.

회장 이종명 목사는 감사원팔연 목사(전주바울교회 담임)를 "신실하고 복음적이며, 신학적으로 보수이고 영성이 뛰어난 부흥사로 대중집회 경험이 많은 목사님"이라고 소개하면서 "전주바울교회가 지역에서 가장 크고 또 할렐루야 강사로 정진경 목사 이후 성경교단 목사로는 두 번째"라고 밝혔다.

예배는 한준희 목사 인도로 기도 이만호 목사, 성경봉독 이상호 안수집사, 설교 방지각 목사, 특별통성기도 주효식 목사(미국과 조국을 위하여), 김명옥 목사(뉴욕동포사회의 복음화와 교제를 위하여), 황규복 장로(감사원팔연 목사와 Wu Alan 전도사를 위하여, 교회와 성

도들의 참가, 날씨, 안전사고, 대회 후원을 위하여) 광고 박진하 목사, 축도 안창의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방지각 목사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28:15-20)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본문은 주님의 지상명령이며 유언이다. 유언을 잘 지키면 본인과 유언한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교회는 전도(선교)하고 소외된 자를 돌보아야 하는데 이를 안하면 간접살인죄를 짓는 게 된다. 복음은 내 이웃에 대한 최고의 투자다. 성령 받아 열정을 다해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교협은 할렐루야 대회 목적과 개요, 방향, 방침, 주요 추진 일정, 조직표, 진행일정 업무 담당 계획 등의 계획안을 발표했다.

2차 준비기도회는 19일(목) 오전 10시30분 뉴욕호산나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열린다.

할렐루야 복음화대회는 7월 15일(금)부터 17일(주)까지 뉴욕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열린다.

(유원정 기자)

펠리세이드교회 5대 김성민 담임목사 위임식

뉴저지 펠리세이드교회 5대 김성민 담임목사 취임예배 및 위임식이 미국장로교(PCA) 동부한미도회가 주관한 가운데 5월 1일 오후 4시 열렸다.

김성민 목사(자신)는 웨스턴스터신학교를 졸업하고 PCA 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 포틀랜드 벨렐교회와 남가주 새소망교회 담임목사로 사역했다. 이날 위임식은 지난 1월 펠리세이드교회 공동의회에서 결정됐으며, 3월 동부한미



노회 인준을 받고 이날 열렸다.

(5면에서 계속)
http://www.cnn.com/2015/08/18/politics/transgender-white-house-obama-first-staff

2016년 3월에는 가장 중요한 자리 중 하나인 미국 교육부 장관자리에 매우 친이슬람이며 자유주의로 잘 알려진 John B. King을 뽑았습니다.

John King은 직책을 받자마자 미국적 학교들 안에서 무슬림 학생들이 얼마 당하지 않도록 무슬림 학생들을 특별히 보호하는 정책을 촉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All Gender 화장실 법안" 미전역에 보수파 정치인들과 자유주의 오바마 정부의 치열한 전쟁!

현재, 오바마 정부와 민주당에 의해 미국 전역은 미전역에 0.3%도 안되는 성전환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아래 미국인의 모든 화장실/탈의실/샤워실을 남자 여자 혼용으로 만드는 법안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계속하여 선거에 대한 우리들의 현명한 지혜와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할지 나누겠습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Includes contact info for various churches like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뉴욕새생명장로교회, etc.

남가주한인목사회 28일 '사랑의 결혼식' 개최

16일(월) 원로목사 부부초청 위로행사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엄규서 목사)는 오는 28일 LA중앙루터교회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하지 못한 부부들을 위해 사랑의 결혼식을 개최한다.

사랑의 결혼식은 기존의 무료 단체결혼식과는 달리 신랑과 신부 한 쌍씩을 다른 시간대에 맞춰 진행할 예정이어서 개인별 하객을 별도로 초청할 수 있다.

엄규서 회장은 "가정을 이루고 싶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혼인예식을 치루지 못한 부부나 결혼

을 앞둔 분들로 관심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했다"며 "결혼 대상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되지 않게 준비했다"고 말했다.

엄 회장은 "이번 결혼식을 시작으로 사랑의 결혼식을 목사회 사업으로 정착할 계획"이라며 "가정의 달을 맞이해 열리는 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덧붙였다.

이번 결혼식은 오전 9시30분부터 2시간 간격으로 진행된다. 현재 혼인부부와 라디오 부부 각 한 쌍이

추가로 신청해 3개 민족이 같은 날 결혼식을 갖게 되 의미를 더하게 된다.

이번 사랑의 결혼식에서 혼인예식을 갖는 자들에게는 장소사용, 신랑과 신부 웨딩드레스, 꽃단장과 부케, 결혼반지, 신랑신부 헤어 손질까지 모두 무료로 제공받게 된다.

한편 목사회는 오는 16일(월) 오



남가주 목사회 회장

전 11시 LA한인타운 내 목사회에서 원로목사 부부초청 위로행사를 갖는다. <박준호 기자>



제30회 동요합창경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대상에 남가주월서 한국학교 제30회 동요합창 경연대회 11개 한국학교 330명 참가

미주한국학교연합회(회장 신영숙)이 주최한 제30회 동요합창경연대회가 7일 오후 3시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대회는 11개 한글학교 학생 330명이 참석해 열린 경합을 벌였으며 영예의 대상은 상금 500불과 함께 '웃놀이'와 '착한 사람들'이 지구를 지켜요'를 부른 남가주월서한국학교(교장 양연숙)가, 최우수상은 '뽕보새'와 '무지개 빛 하모니'를 부른 은혜로한국학교가 수상했다.

다음은 제30회 동요합창 경연대회 수상자 명단이다.

△대상: 남가주월서한국학교 △최우수상: 은혜로한국학교 △우수상: 샌디에고갈보리한국학교, 한얼큰사랑한국학교 △최우수상: 나성열린문한국학교 △인기상: 나성영락한국학교 △장려상: 남가주플러린한국학교, 로스앤젤레스한인침례한국학교, 나침반한국학교, 남가주어바인한국학교, 나성순복음동요한글학교.

<박준호 기자>

'사랑이야기' 남가주 순회 찬양콘서트 13일까지 10개 교회 및 2개 단체서

CCM남성듀오 '사랑이야기'(김재중 선교사, 김현중 선교사) 찬양콘서트가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13일까지 남가주 지역 10개 교회 및 2개 교계단체에서 열렸다.

지난 4월 오후 7시30분 에브리데이교회(담임 최홍주 목사)에서 열린 사랑이야기 찬양과 간증의 밤 콘서트에서 최홍주 목사의 소개를 받고 무대에 오른 사랑이야기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의 숲', '주파르코' 등을 불렀으며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과 '그 사랑'을 정중들과 함께 불렀다.

사랑이야기는 지난 4월 27일 새

생명비전교회(담임 강준민 목사)를 시작으로, 29일 샌디에고 갈보리교회, 30일 율타리교회, 5월 1일 코너스톤교회(담임 이종용 목사), 3일 GMU 체플, 6일 하나로커뮤니티교회(담임 이순준 목사), 7일 소중교회(담임 김기동 목사), 8일 데메콜라갈보리교회(담임 최규남 목사), 10일 한길교회(담임 노진준 목사)에서 밀알교회단 화요일, 11일 산샘교회(담임 윤석형 목사), 13일 늘푸른교회(담임 안창훈 목사)까지 일정을 소화했다.

<박준호 기자>

살롬장애인선교회 주최 경로잔치에서 박모세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장애어르신 30명에 오찬과 선물 격려 살롬장애인선교회, 제17회 '아버이 섬기기 경로잔치'

살롬장애인선교회(대표 박모세 목사)가 주관하는 제17회 '아버이 섬기기 경로잔치'가 5월 3일 한인타운에 위치한 만리장성에서 30여 명의 장애를 가진 65세 이상 노인들을 초대해 가운데 열렸다.

이날 경로잔치에서 박모세 목사는 "누가 내 가족인가?"(마12:46-50)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통해 어르신들을 격려했다.

예배 후에는 선교회 노인 회원과 이날 참석한 장애를 지닌 노인들에

게 선교회 측에서 마련한 점심과 선물을 나누며 위로와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살롬장애인선교회는 선교회가 설립된 이래 제3세계 빈민국 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운동을 비롯해 아버지 섬기기 경로잔치, 살롬 정기음악회, 한방치료, 미용 등으로 장애인과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

<정리: 박준호 기자>

크리스천헤럴드, '미주교계 인물사전' 발간

지난해 10월 공중과 채널 18.88을 개국한 크리스천헤럴드(발행인 알렉스 양)가 개국과 함께 많은 자료가 필요함을 절감하고 '미주교계 인물사전'을 발간할 계획이다. 인물사전에는 이민 선조인 안창호, 서재필, 윤치호 선생, 김영옥 대령 새미리 박사 등이 재조명되며 학계와 전문분야를 통해 검증 실시한다고, 게재

를 원하는 분은 웹사이트 <http://www.chtv1888.org> '미주교계인물사전'을 참조하고 후원금과 이력/경력사항을 이메일 databse@chtv1888.org로 보내면 된다.

▲문의: (213)353-0777 정요한 목사



사랑이야기 콘서트가 남가주 11개 교회에서 열렸다. 사진은 에브리데이교회에서 열린 사랑이야기 찬양과 간증의 밤에서 사랑이야기 찬양하고 있는 모습

서부교계 게시판

정승재씨 OC 심포니 객원지휘

오렌지카운티 심포니의 악장인 바이올리니스트 정승재 씨가 5월 15일(주) 오렌지카운티 심포니(The Resident Symphony Orchestra of the City of Anaheim)에서 콘서트를 객원지휘 한다. Carl Nielsen의 곡 Suite for Strings를 지휘하며 비발디 사계 중 '여름'과 '겨울'을 바이올린으로 연주할 예정이다. 정승재 씨는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사역을 하고 있으며 현재 클레어몬트대학교에서 오케스트라 지휘로 박사학위 과정에 있다.

▲문의: (714)318-2085

효사랑 글짓기 그림 공모전

효사랑선교회에서는 제 4회 미주 청소년 효 글짓기 그림 공모전을 실시한다. 응모대상은 초등부어린이(1학년)로부터 고등부(12학년)학생까지이며 장애우는 학년과 나이 제한 없이 청소년이면 응모가능하다. 응모주제는 글짓기와 그림 모두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는가?'이며 글짓기는 한글, 영문 모두 가능하고 그림은 크레파스, 수채물감, 드로잉, 오일페인트 등이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5월 20일까지. 시상은 6월 11일(토) 플러튼 장로교회에서 갖는다.

▲문의: (714)670-8004

백경환 목사 제 9회 성가작곡발표회

백경환 목사 제 9회 성가작곡 발표회가 5월 15일(주) 저녁 6시 가나안교회(17200 Clark Ave., Bellflower)에서 열린다. 백경환 목사는 57년간 성가대 지휘자로 교수로 작곡가로 활동하며 미주한인교회 음악계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이번 발표회에는 KAM 코랄과 OC 영락교회 성가대 그리고 유능한 성가자들이 찬조 출연한다. 입장료 무료.

▲문의: (213)210-3283

찬양교회 '은총의 30년' 기념행사

찬양교회(담임 김성대 목사)가 설립 30주년을 맞아 세이레 특별새벽기도회 및 전교인 체육대회시작으로 야외예배(5월 22일)와 축복성회(5월 26-28일)를 개최하며 설립기념 예배는 6월 5일(주) 오후 4시30분 찬양교회 본당에서 갖는다.

▲문의: (213)383-7284

OC영락교회 이동원 목사 초청 부흥집회

오렌지카운티영락교회(담임 김경섭 목사)는 이동원 목사(지구총교회 원로) 초청 부흥집회를 '전도의 열정 다시 타오르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13일(금)부터 15일(주)까지 개최한다. 일정은 13일 저녁 7시30분, 14일 새벽 6시, 저녁 7시, 15일 1부 8시, 2부 10시, 3부 11시40분.

▲문의: (714)534-1135

나성한인교회 말씀부흥회

나성한인교회(담임 신동철 목사)는 말씀부흥회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8:32)라는 주제로 13일(금)부터 15일(주)까지 개최한다. 강사는 박찬호 목사(백석신학대학원 조직신학교수, 전 웨스트민스터신대원 총장)이며 일정은 13일(금) 저녁 8시, 14일(토) 새벽 6시, 저녁 7시, 15일(주) 오전 9시, 11시, 오후 1시30분.

▲문의: (323)221-9531

ANC온누리교회 설립 20주년 기념 말씀집회

ANC온누리교회(담임 김태형 목사)는 교회설립 20주년 기념 말씀집회를 '같이 걷기: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으로'라는 주제로 13일(금)부터 15일(주)까지 개최한다. 강사는 이용규 선교사(내려놓음 저자)이며 일정은 13일 저녁 7시45분, 14일 오후 7시, 15일 1-3부.

▲문의: (626)808-5321 홍경현 목사

OC제일장로교회 심령부흥성회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담임 염영민 목사)는 심령부흥성회를 20일(금)부터 22일(주)까지 개최한다. 강사는 송태근 목사(서울삼일교회 담임)이며 일정은 20일과 21일 저녁 7시30분, 22일 오전 8시15분, 10시30분.

▲문의: (714)891-2029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후 2:00 영아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영양예배: 오전 9:30, 11:3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8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1부예배: 오전 7:45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후 2:00(영성) 주일영아예배: 오전 11:30 주일영아예배: 오후 7: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김경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영아예배: 오전 11:30 주일영아예배: 오후 7: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문수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양예배: 오후 6:00(토)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6:30 EM, 태극무: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1:00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드림)예배: 오후 12:30 영어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영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후 2:00 영아예배(영소-KDC, 영영도원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아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일예배: 저녁 7:30	등문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영양예배: 오후 7:45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흠뻑 있는 우리의 동행을 위해 임하는 선교회" 필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아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전 5:30(매일)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1부: 오전 8:30 주일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1:45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영어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오전 6:00(토)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효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아예배: 오후 11:00(청년) 성인영아예배: 오후 11:00 대학영아예배: 오후 1:00 영양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영양예배: 오후 7:30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요셉선교회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전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박경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영아예배: 오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수요일예배: 오후 7:00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45(영아) 주일3부예배: 오전 11:00(청년) 주일영아예배: 오후 7:00(대학부)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토요일영아예배: 오후 6:0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영아예배: 오후 2:00 영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00(토) 새벽기도: 오전 3:00(월-토), 3:30(월-토)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영아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50(월-토) 성령대행회: 오후 7:20(금)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월-금)	중은마을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예배: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바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영아예배: 오후 2:00(청년) 주일5부예배: 오후 3:00(청년) 영양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8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www.gracem.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www.juninchurch.com 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gicj.org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socialsamsungchurch.org Tel: (714)646-9239 Fax: (714)646-9264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www.cornestonelv.com / e-mail: pastor@cornestonelv.com Tel: (310)530-4040(미),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www.torrancece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지경을 넓히는 해’ ...도약과 부흥 선포 예성 제110 연차대회 및 정기총회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 제110 연차대회 및 정기총회가 ‘성결교회의 지경을 넓히는 해’를 주제로 9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에서 막을 올렸다.

총회에 참석한 600여명의 대의원은 110년 동안 이어온 성결교의 저력을 기반으로 교단의 부흥과 도약을 다짐했다. 개회예배에서 ‘성결의 복음을 땅끝까지’(행1:6-8)를 제목으로 설교한 송덕준 총회장은 “성결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인 신앙공동체로 죄를 깨닫고 자복함으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축사를 전한 한국교회연합 조일래 대표회장은 “현재 한국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상실하는 등 자체적 요인과 안티기독교세력의 공격 등 외부적 요인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단과 싸우고, 교회의 일치를 이뤄내는 일에 성결교회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다른 성결교단 대표들은 ‘형제교단’을 강조하며 화합과 일치를 권면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유동선 총회장은 “성결교는 과거 분열의 아픔을 겪었지만 이제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 김영수 감독은 “사회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한 이때 성결을 강조하고 실천하는 성결교의 3개 교단이 힘을 모아 민족과 한국교회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채영남 총회장과 구세군사관학교 조진호 총장 등도 축사를 했다.

임원선거는 10일 오전에 치러진 회의에서 자동승계 방식으로 이동석(서울 능력교회) 부총회장을 총회장으로 추대했다.

이 신임총회장은 성결대를 졸업했으며 예성 부흥사회 상임회장과 민족통일복음화대교회 상임회장, 한국기독교성령100주년대회 상임

강사단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교단의 흥망성쇠는 지교회의 전도와 부흥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며 “예성의 현실에 맞는 전도·선교의 원리를 회복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지역별 전도 집회 및 교회성장 세미나를 열어 목회자들의 영성 강화와 전도 열정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회장은 1986년 개척 초기부터 영적 성장에 초점을 맞춘 성령운동을 전개해 현 능력교회의 부흥을 이룬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성령운동의 핵심은 경건주의에 바탕을 두고 교회의 성장과 성도의 회개 운동을 이끈다는 것이다.

이 총회장은 세대교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질의 목회자와 신학생 양성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노영춘·미자립교회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위한 복지정책 마련, 교단차원의 의료선교팀 구성,

총회회관 신축 등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의원들은 목사 부총회장에 단독후보로 나선 김일교(부천 참좋은교회) 목사를 선출했다. 장로 부총회장에는 강환준(서울 주님앞예제일교회) 장로, 서기에 김윤석(안양 좋은이웃교회) 목사, 회계에 정기소(수원중앙교회) 장로, 부서에 이광진(서울 장신교회) 장로를 선출했다. 단독 후보로 나선 이들은 모두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어 당선됐다.

3명의 후보가 접전을 벌인 총무선거에서는 이강준(이천 늘푸른교회) 목사가 당선됐다. 이 목사는 향후 4년간 총회의 행정업무 전반을 관장한다.

회무에서는 은급규정과 관련해 총 240개월 이상 목회를 했을 경우 일시불로 은급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과 행정구역의 조정·분할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총회는 11일까지 열리며 대의원들은 총회회차 중 열리는 부흥회에서 헌금을 모아 일본과 에콰도르의 지진피해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에큐메니컬과 복음주의 중재하는 성령운동 일으켜야”

기하성 여의도순복음 행정세미나...순복음신학교 63주년 감사예배도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여의도순복음(총회장 이영훈 목사)은 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총회 행정세미나를 개최하고 교단 역사성과 발전 방안을 고찰했다.

이영훈 총회장은 “교단은 이미 기하성 시대문 축과 통합을 하기로 결의했지만 그쪽 교단의 몇몇 정치적인 인사들의 고소·고발 남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소송비용만 모

아도 미자립교회 수백 개를 도울 수 있는 천문학적 금액이다. 우리 교단은 이걸 타산지적으로 삼아 철저히 말씀중심의 성령운동을 전개해 제2의 부흥의 역사를 일궈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회장은 “한국의 순복음교단은 1906년 미국 아주사 부흥을 경험한 매리 립스 선교사가 1928년 조선에 들어오면서 사실상 시작됐다”면서 “이처럼 20세기를 뒤흔든

오순절 부흥의 주역은 천하고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사람들을 통해 가장 큰 역사를 일구신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 교회의 3대 흐름을 정리하고 순복음교단이 교회 부흥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 교회는 세계교회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에큐메니컬 운동과 세계복음연맹을 주축으로 하는 복음주의운동, 오순절교회가 주도하는 성령운동 등 3대 흐름으로 가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오순절교회는 에큐메니컬 운동과 복음주의 운동을 중재하는 성령운동을 일으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태근 여의도순복음분당교회 목사는 “목회자가 교회 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주된 갈등 영역인 인사와 재정문제에서 목사와 장로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한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당회 구성원 간 서로의 직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그 역할을 문서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하성 시대문 총회는 이날 서울 은평구 역말로 순복음신학교에서 개교 63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1953년 개교한 순복음신학교는 조용기 최성규 이영훈 엄기호 함동근 목사 등 4211명의 목회자를 배출했으며, 319명이 재학 중이다.

“미 정부 동성애 행사 후원은 내정간섭”

교계 시민단체, 미 대사관 앞에서 항의 집회

오직예수사랑선교회와 G&F미니스트리, VOCD 인터내셔널은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정부는 한국의 윤리·도덕적 문제에 내정간섭하지 마라”고 촉구했다.

이들 교계·시민단체가 항의한 것은 주한 미국대사관이 이날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주최로 열린 동성애자 부모초청 포럼의 공식 후원자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 2월 동성애자 인권특사를 한국에 보냈으며,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해 6월 쿼어 문화축제에 참여해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들 단체는 항의공문에서 “다른 나라의 윤리·도덕적 문제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국제 외교원칙에 명백히 명시돼 있다”면서 “미국 정부의 지시를 받는 주한 미국대사관이 한국의 동성애자 행사를 직접 후원한 것은 명백하게 한국의 윤리·도덕적 문제에 대한 내정간섭”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국에서 동성애로 인해

에이즈에 걸리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주한 미국대사관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행동을 한국에서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는 반미감정을 더욱 부추길 것이다. 미국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대다수 한국인들의 의견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주한 미국대사관 국제교류담당관은 이에 대해 “미국대사관은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인권이라 믿고 있다”면서 “동성애자의 부모와 가족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행사를 후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LGBT의 권리는 보편적 권리의 일부이며, 미국대사관의 동성애 행사 후원은 한국인에게 어떻게

하라, 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다”라며 “미국대사관은 계속해서 동성애자 지원활동을 할 것이다. 올해 6월 쿼어문화축제 때도 부스를 만들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원 오직예수사랑선교회 대표는 “동성애는 심각한 성중독이며, 동성애자들은 에이즈와 각종 성병에 노출돼 있다”면서 “미국 정부가 이것을 알면서도 동성애를 옹호·조장한다면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혐오하는 것이다. 미국은 부도덕한 성문화를 한국에 강요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다해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는 “신천지의 계시론 신론 기독교론 구원론 중 말론에 문제가 있다”며 1999년에, 예장고신은 “이씨가 직통 계시자, 보혜사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2005년에 신천지를 이단으로 규정했다. 예장합신(2003년) 예장대신(2008년) 기독교대한감리회(2014년)도 각각 총회 현장에서 신천지를 이단으로 지정했다. 한국교회의 나머지 교단들도 신천지의 이단성과 사이비성, 반사회성에 대해선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신천지는 비기독교적” ...주요 교단서 이단 지목

예장통합총회, 20년 전 이단 지정

신천지(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를 제일 먼저 이단으로 지목한 예장통합은 1995년 제80회 총회 결의에서 “이만희씨는 장막성전(당시 교주 유재열) 계열로서, 그가 가르치고 있는 계시론 신론 기독교론 구원론 중말론 등 대부분의 교리는 도

저히 기독교적이라고 볼 수 없는 이단”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씨의 교리나 주장을 가르치고 따르는 신천지교회나 무료성경신학원(기독교신학원)에 총회 산하 교인들이 가는 것을 금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예장합동은 95년과 2007년 두 차례 결의를 통해 신천지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예장합동은 총회이단(사

이비)피해대책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 “신천지 교주인 이씨는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로, 인치는 천사라고 주장하며 심지어 보혜사라고 한다”면서 “이씨는 새 언약과 새 일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고 가르쳐 자신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씨는) 교주인 자신이 나왔으니 종말이 되었다고 하고 자신을 믿지 않는 것이 곧 심판이라고 주장하는 재림주”라면서 “한국교회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정도로 무서운 이단으로서 모든 교회가 최선을

다해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는 “신천지의 계시론 신론 기독교론 구원론 중 말론에 문제가 있다”며 1999년에, 예장고신은 “이씨가 직통 계시자, 보혜사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2005년에 신천지를 이단으로 규정했다. 예장합신(2003년) 예장대신(2008년) 기독교대한감리회(2014년)도 각각 총회 현장에서 신천지를 이단으로 지정했다. 한국교회의 나머지 교단들도 신천지의 이단성과 사이비성, 반사회성에 대해선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교인-비교인 대북인식 비슷...이념보다 복음 우선돼야”

복음주의신학회·조직신학자대회 잇따라 통일 관련 의제 제기

북한 핵실험과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주요 신학회와 교단 등이 복음적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노력을 주문하고 나섰다.

한국복음주의신학회(회장 권혁승 교수)는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백석대 대학원에서 ‘평화통일과 한국교회의 과제’를 주제로 정기는 문발표회를 열고 “한국교회는 복음 통일을 위한 교회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강연에서 김병연(서울대) 허문영(통일연구원) 교수는 교회가 추구해야 할 통일 노력의 방향을 큰 틀에서 제시했다. 허 교수는 “한국교회는 평화통일을 넘어 ‘복음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회개와 용서’가 먼저라고 호소했다. 허 교수는 “전쟁 당시 평양 인구가 40만명이었는데 그 위에 43만개의 폭탄이 떨어졌다”며

“통일 논의 이전에 동포를 사랑하지 않고 분단을 지속시킨 죄를 회개하고 북녘 동포의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복음통일을 위해선 십자가의 사랑에 기초해 하나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교수는 다양한 통계자료를 인용해 한국교회 안에 북음보다 이념이 우위인 상황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인이나 비교인이나 인식이 거의 같다. 성경 말씀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 채 자기 소견대로 생각한다”며 “통일은 마음의 준비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일을 위해서는 이상과 현실을 이해하고 그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교회는 통일을 사업으로 여길 게 아니라 ‘사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진 분과발표에서도 다양한 통일 연구 성과가 도출됐다.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독교 상담적 로고테라피’ ‘통일목회’ ‘양육과 동역으로 만들어가는 통일운동, 나오미 프로젝트’ ‘통일 후 효과적 전도의 도구로서 민족의 애가 아라랴 사용방안 연구’ 등이다.

지난달 22일 열린 한국조직신학자대회도 ‘통일을 염두에 둔 한국개신교회 일치를 위한 신학적 대화’가 주제였다. 이 자리에서 윤철호(장신대) 교수는 “통일은 막대한 비

용이 뒤따르지만,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우리 민족의 지상 과제”라고 역설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도 지난달 19일 포럼을 열고 “급변하는 남북관계와 정부 정책에 따라 (한국교회의) 통일운동이 흔들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지금쯤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통일운동’을 벌일 시점”이라고 주문했다.

광주지역 교계 동성애대책 시민연대 결성

차별금지법 폐해 알리고 저지 위해 66개 단체 뭉쳐

광주지역 교계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 동성애(차별금지법)대책 시민연대를 결성했다.

시민연대는 4일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알리고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기독교단협의회 등 66개 시민단체가 지난 2일 광주 서구문화센터에서 시민연대를 결성했다”면서 “박주선 의원과 윤장현 광주시장

등이 참석해 차별금지법안 저지의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구제길 대한보건협회 전남지회장은 “에이즈 환자의 치료를 위해 특혜에 가까울 정도로 매달 수백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지금과 같은 속도로 급증하는 에이즈 환자에게 의료비를 100% 지원한다면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찬송가공회 정상화 ‘순항’

전용재·박무용 공동 이사장 선임

(재)한국찬송가공회(법인 공회)가 지난 2월 찬송가공회 정상화 합의 이후 처음으로 정기 이사회를 열고 새 임원을 선출하는 등 정상화를 위한 첫발을 디뎠다.

법인 공회는 최근 서울역 인근의 한 식당에서 제34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이사장과 서기, 회계를 선임했다. 공동 이사장에는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전용재 감독회장과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박무용 총회장이 선임됐다. 서기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윤기원, 예장합동 윤두태 목사, 회계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전병일, 예수교대한감리회 이명구 목사가 맡았다.

이날 예장대신과 기독교대한하

나님의성회의 이사 파송안도 상정됐지만 정관 개정이 필요한 사안 이어서 차기 이사회 때 논의하기로 했다. 이사의 정년은 70세로 정한 정관에 따라 지난달 22일 임시 이사회에서 결의한 총무 박노원 목사의 해임은 정당하다고 확인했다.

찬송가공회 정상화 합의 당시 조건이었던 9개 교단이 파송하는 새 이사회 구성은 마무리 과정에 있다. 법인 공회는 지난달 임시 이사회에서 전 감독회장과 박 총회장 등 8개 교단에서 파송한 이사를 인준했다. 기독교한국침례회는 아직 이사를 파송하지 않았다.

신천지 탈퇴자 폭행사건 왜곡 보도

천지일보 2심 손해배상 소송도 패소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들의 폭행사건을 왜곡 보도 했던 천지일보가 피해자 측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2심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이에 따라 폭행 후 가해 사실이 없다고 밝혔던 신천지 기관지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천지일보의 관련 보도가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

서울고법 민사13부(조한창 부장판사)는 신천지 탈퇴자 이모(24)씨가 천지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천지일보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정정 보도와 20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이 사건은 2013년 3월 천지일보가 신천지 탈퇴자인 이씨와 관련된 폭행 사건을 보도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이씨는 신천지 탈퇴 과정에서 신천지 신도 3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지만 천지일보는 ‘신천지 탈퇴했다고 폭행?... 눈길에 미끄러져 다친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피해자가 눈길에서 미끄러진 것이라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신천지 신도 3명은 이씨가 신천지 교회에서 선교활동을 하다가 탈퇴한 뒤 선교 활동을 방해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2013년 2월 5일 이씨의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렸다가 공동으로 이씨를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고 지적했

선교한국 2016 대회 8월 1-6일 세종대서 열려

선교한국 2016 대회 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김수억 목사)와 조이선교회가 주최·주관하는 ‘선교한국 2016 대회’가 오는 8월 1-6일 서울 광진구 능동로 세종대에서 ‘그런즉 우리도’라는 주제로 열린다. 성경강화와 강연을 비롯해 ‘선교한마당’ ‘지구촌 한마당’ 등 다양한 볼거리와 4개 파트로 나눠진 영역별 주제 강의 등이 진행된다.

김수억 조직위원장은 “지난 28년 동안 개최된 14번의 선교한국

대회에 모두 6만명이 참석했다”며 “지역 교회와 해외 파송단체, 학생 선교단체 등이 연합해 준비하는 것이 이 대회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대행 상임위원장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떤 사명을 갖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지에 대한 내용이 설교와 행사의 골자”라며 “세계의 이슈가 선교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알아보고 선교사와 개발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도 준비돼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한인기독교방송협회 김명규 신임 회장 선출

이사장, 이영훈 목사 연임...총회는 내년 5월 뉴저지에서

국내외 한인기독교방송사들의 협의체인 세계한인기독교방송협회(WEBCA)가 신임 회장에 김명규 C채널방송 회장이 선출됐다고 5일 밝혔다.

이사장에는 기독교복음방송 Goodtv 이사장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가 연임됐다. 이사장 임기는 2년이다.

부회장은 한기봉 극동방송 사장, 김양재 MCTV 대표가 선임됐으며 감사에는 CTS 김관상 사장, 유택중 KEMS 사장, 사무총장은 이성철 C채널방송 전무가 선임됐다.

제22차 세계한인기독교방송인대회 및 총회는 내년 5월 미국 뉴저지에서 개최된다.

구 지회장은 “요즘 학교에서도 동성애에 인권이라며 학생들에게 동성애의 문제점을 알려주지 않고 있다”면서 “이렇게 교육하다보니 청소년들이 동성애를 하다가 에이즈에 감염되는 수가 늘어나고 있다. 시민연대가 동성애의 진실을 알려 달라”고 부탁했다.

이태희 미국변호사(범무법인 산지)도 “대한민국 사회에선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 세계관과 동성애를 옹호하는 인본주의 세계관이 관점 충돌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면서 “잘못된 인본주의 가치관에서 비롯된 동성애를 바로잡는

데 시민연대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시민연대는 앞으로 동성애 관련 자료집 배포,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안·조례 저지 및 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중 성적 지향 문구 삭제, 지자체와 교육청의 동성애 옹호·조장 활동 감시, 동성애자의 상담·치유 등의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질병관리본부에 동성애와 에이즈의 긴밀한 상관관계를 밝히라고 촉구할 계획이다.

선교의 창 (54)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Ph.D)



선교 모델인 안디옥 교회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 왔다. 이중 가장 본이 되는 선교적 교회가 있다면 어디인가? 사도행전 13장에 언급되는 안디옥 교회이다. 이 교회는 바울 선교의 중심지였다. 그곳은 1, 2, 3차 선교의 출발과 도착지이다. 본 교회가 탄생하기 전까지 복음은 지역적으로 팔레스틴 땅, 즉속으로는 유대민족 그리고 사상적으로 시오니즘에 갇혀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그들을 통해 열방이 복을(창12:3) 얻게 하기 위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륜을 거역하고 자기들끼리의 계도를 만들었다. 결국 하나님은 로마를 들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했고 그들은 핍박에 못이겨 흩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로 이 땅에 처음 세워진 것이 안디옥 교회이다. 안디옥교회는 세계선교의 베이스 캠프처럼 놀라운 선교적 과업을 수행했다. 만일 당시의 안디옥교회가 없었다면 기독교의 지형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안디옥교회가 어떻게 해서 Missional Church로서 역사의 족적을 남기게 되었는가? 오늘 우리 교회들은 그 특징을 본받아 땅 끝 선교에 전력해야 한다.

1. 성령의 인도함에 순복하는 교회

안디옥교회는 여러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 바나바는 구브로 태생인 레위 사람으로 예루살렘교회에서 파송되어 온 자이다. 니게라라 하는 시몬은 아마도 흑인 개종자로 추측한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북아프리카에서 왔을 것이다. 분봉왕 헤롯의 젓동생 바나엔은 왕족출신이다. 사울은 바리새인이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이다. 중심인물 그 면면을 보면 출신성분이나 족속 그리고 자라는 배경들이 완전히 달랐다.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좋은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동역하기 힘든 여건이다.

그러나 안디옥교회는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았다. 오로지 '성령께서 불러 시키는 일'(행 13:1)을 경청했으며 한 마음으로 순복했다. 선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다. 성령이다. 성령은 선교의 영이다. 오늘의 기독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순복하고 있는가? 만일 Yes라면, 왜 안디옥교회처럼 선교적 교회가 별로 보이지 않는가?

2. 금식과 기도로 올린 하는 교회

안디옥교회는 '주를 섬김 금식하며 기도'(행13:2,3)를 했다. 그들은 왜 금식하며 기도했는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준행하기 위해서이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렘 29:12). 금식의 의미는 집중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보통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기도를 잘 하지 않는다. 기도가 없으면 세속 충만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렵다. 이슬람은 하루 5번씩 메카를 향해 절을 하며 기도하고 있다. 그들은

교회가 설 수 없다. 선교도 할 수 없다. 말씀은 인간의 삶과 사역의 원천이다. 정통과 유대인들의 중, 고교에서는 오전 내내 말씀을 공부하게 한다. 학생들은 학습시간에 토라와 탐무드를 서로 번갈아 쓴다. 그들은 오후 시간에야 여타 일반과목을 공부한다. 그러도 아이비리그 대학에 다수가 들어간다. 노벨상 30%가 넘는 다. 이러한 결과는 말씀이 지혜와 능력이라는 증거이다. 말씀에 취해 있을 때 세상이 침투하지 못한다.

안디옥교회가 힘이 있었던 것은 말씀을 취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Teaching is learning이다. 이렇게 말씀이 근간을 이루면 결코 흔들림이 없다. 선교도 말씀에서

선교는 깃털로 적당히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100% 헌신을 할 때 나타난다.
안디옥 교회는 Missional Church로서 역사의 족적을 남겼다.

라마단 기간에 해가 있는 낮에는 식물을 입에 대지 않는다. 열사의 나라 중동에서 한 달간이나 금식하며 생활하니 영적으로 독해지지 않을 수 없다. 유대교인들도 하루 3번씩 기도생활을 하고 있다.

오늘 우리 크리스천은 어떠한가? 금식을 하며 결사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일 년에 몇 번이나 있는가? 다니엘처럼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자가 얼마나 될까? 우리 신앙생활 한다면 어떤가? 우리 신앙생활 한다면 어떤가?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행함이 없이 관념론적인 신앙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생명공동체이다. 교회가 선교를 위해 안디옥 교회처럼 전후적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 첫걸음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다.

3. 말씀을 먹고 가르치는 교회

안디옥교회는 말씀(행11:24-26)이 있었다. 말씀은 생명이다.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건강할

발원한다. 그러므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말미 공론화 되었다. 그리스도인(a man in Christ)이란 주님께 속하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위해 사는 자이다.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은 말씀을 생명으로 취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깨닫는 대로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고 있는가?

4. 세계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교회

안디옥교회는 세계선교를 위해 온전히 헌신했다. 그 교회는 설립된 지 겨우 2년 밖에 되지 않았다. 더욱이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교회에 절대로 없어서는 안될 기둥과 같은 존재들이었다. 그 두 사람이 빠져 나가면 안디옥교회는 크나 큰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에 기꺼이 헌신했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아픔을 감수하고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했다. 선교는 이렇듯 교회에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다. 다 쓰고 남은 것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한마디로 깃털이 아니라 몸통으로 선교한 것이다.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다.

선교는 희생이다. 자기희생이 없는 곳에서는 새 생명이 잉태되지 않는다. 산모가 자기 몸을 부셔야 아기가 탄생한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 주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때도 자기 생명으로 하셨다. 희생이 없는 곳에 성령의 역사도 없다. No Cross, No Crown이다. 그러므로 선교는 일 년에 여름 한철 단기선교로 될 일이 아니다. 교회가 한, 두 사람 파송하고 후원하는 것으로 될 일이 아니다. 안디옥교회처럼 통째로 교회자체가 선교적으로 온전히 변화가 가능하다.

맺음 말

선교 펴기

에티오피아

선교 동역자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에티오피아는 아침 저녁으로 비가오고 있어 소우기를 맞고 있으며, 집 앞뒤에 심은 바나나 나무에서 노오란 바나나 열매들이 가득합니다. 또한 제일 큰 명절 중의 하나인 부활절 준비를 위해 지금 한창 온 거리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부활절을 맞이하며

5월 1일은 에티오피아 캘린더로 부활주일입니다. 에티오피아 전국적으로 제일 큰 명절이기도 하지만, 개신교회들은 찬양집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책으로 읽은 내용들을 이해하여 자신들의 문화와 사역에 잘 적용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석사논문 쓰는 터파리라는 학생을 잘 지도해서 무슬림지역의 효과적인 전도 방법을 모색하고 제시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로 생명의 말씀교회 14번째 개척 현황

아디스아바바에서 북쪽으로 위치한 있는 오로모 주의 아마로 지역은 전통종교와 정교회가 혼합된 지역입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와 말씀 사경회로 예수님의 고난과 마음을 품고 부활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선교사 오른쪽 눈 망막 수술 후 회복에 감사

박종국 선교사의 오른쪽 망막 수술과 치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박선교사의 눈 치료를 모두 마치고 저희는 4월 17일에 다시 에티오피아로 돌아왔습니다. 두 눈의 시력이 잘 조절이 되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혜 선교사의 건강과 EGST 대학원 교수사역

장 선교사는 에티오피아 입국 후 4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습니. 갑작스럽게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고 어지럼증이 심해 쓰러지고, 구토를 계속해 여러 가지 검사와 치료를 통해 지금은 회복 되어 EGST(에티오피아 신학대학원)에서 다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장은혜 선교사가 5월 2주간에 걸쳐 보충수업을 통해 학기를

교회 개척되었습니다. 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정교회가 개신교인들에게는 지역사회 묘지를 사용할 권한을 금하는 핍박 때문에 다시 정교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개신교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묘지를 정부에서 받거나, 인근지역에서 묘지로 사용할 수 있는 땅을 구해서 새 성도들이 묘지로 인해 개신교로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없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강력한 복음 증거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십시오.

△6월-8월 방문할 단기선교팀이 성령 안에서 평안한 준비, 효과적 복음전도를 할 수 있도록 △6월 2일-11일 KWMS 세계선교대회, GMS교단, GMAN 선교지도자 세미나 참석 △6월 25일-7월2일: 서울 선한이웃교회 단기 팀 15명 △8월 8일-15일: 안양 평성교회 단기선교팀 26명

(14면으로 계속)

PRINTING & PROMOTION

각종 인쇄물과 다양한 판촉물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행사에 필수!!

BOOKS KOREANA

한국서적

BOOKS KOREANA, INC

월-토 : 오전 9:30-오후 8:00

- 기독교서적
- 기독교용품
- 일반서적
- 서예용품 전문
- 2016년 달력제작

CJ 택배 ups

한국으로 택배 미국내 택배

판촉볼펜

주보/헌금봉투

교회책자

단체 T셔츠

책 만들어 드립니다.

각종 상패

머그컵

타올

교회/매장/기타단체

전화: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상담 환영!

교회에서 행사할 때 수련회 단체 T셔츠 한글학교 단체복 원하는 디자인으로 해드립니다.

이메일 상담과 주문

bookskorea@gmail.com

선교 칼럼

강성철 선교사
(브라질)



“선교시각에서 본 브라질 및 남미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지금 한국교회는 교회도 선교도 새로운 변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될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주님이 분부한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도자들의 생각과 삶의 변화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야 한다고 본다.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한국인들의 선교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1928년 9월20일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일본국 조선인 신문의 여권을 가지고 브라질에 입국한 장승호(일명 미다)씨로부터 시작된다. 그 후 1956년 중립국을 택하여 브라질에 입국한 반공포로 국적 없는 한인들로 이어진다. 일본인 아내를 얻고 테릴사위로 들어가 미다라 불리어지는 장승호 평신도선교사는 일본에서 소년시절에 교회에서 차별하지 않고 따뜻한 사랑으로 자기를 영접해준 일본교회에 감사하면서 브라질파송 일본선교사인 존 미스끼(John Mizuki)의 선교사역을 돕기 위해서 이민을 왔다.

또한 중립국을 택하여 브라질에 입국한 반공포로 가운데 강희동 목사, 문명철 목사, 이준희 목사, 강석근 목사 평신도선교사 백영훈, 이들은 한국에서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들로 브라질에 와서 신학을 하고 미국 유학을 다녀 온 리더들로 브라질 교계 깊숙이 들어가 지도자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하며

로 한국인 선교사들이 브라질에서 선교사역을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장승호 씨는 브라질 최초의 한인 평신도로서 쌍파울에서 일본인 선교사와 브라질에 세워진 일본인교회를 섬겼으며, 강희동 목사는 남부에서, 이준희 목사는 남부지방에서, 문명철 목사는 쌍파울에서 목회자와 교수로 그리고 백영훈 씨는 리오 데 자네이로에서 학교사역을 감당했다.

브라질 한국인 선교는 흠어진 씨앗처럼 예수생명을 가진 디아스포라 한인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들에게는 당시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한국인이라는 국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인으로서 사역을 했다. 이들은 선교훈련의 과정도, 파송식도, 후원교회도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께서 분부한 선교사역을 수행하였다.

그 후 1961년 12월에 문화 사절단이 입국하여 이민사업을 추진하므로 1962년 12월18일 화란 유람선 치차캉가호로 부산항을 출발한 177구(92명)가 55일이 걸려 1963년 2월12일에 브라질 산토스항에 도착하므로 브라질 이민의 문이 열렸다 이 무렵 한성욱 선교사(1964년 9월3일 미국성서감리교선교부 파송), 김계용 선교사(1967년 5월14일 통합장로교 선교부 파송), 황문규 선교사(1968

년 미국남장로교단 파송), 박광자 선교사(1968년 6월 미국그레이스영재선교회 파송), 김성준 선교사(1969년 4월30일 위클리프성경번역선교회 파송), 양승만 선교사(1968년 3월 예장합동선교부 파송)가 한국의 교단과 미국교단 및 선교단체로부터 파송을 받아 한인 선교사로 브라질에 입국하였다.

1963년4월15일 쌍파울로에 연합교회가 창립된 이후 현재 45개 교포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와 함께 선교사역이 진행되었다. 브라질 및 남미 땅은 이민의 역사가 50년이 넘어가면서 부모와 함께 이민 온 1.5세 청년들이 이제 60세를 넘어가고 있다. 놀라운 것은 이들 가운데 목사로, 선교사로 헌신하여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 브라질만 80여명에 이르고 있다.

남미 아태아대학원 개원은 브라질 및 남미 선교를 선교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어온 성령사역임을 새롭게 깨닫게 된다. 지금도 선교의 산 증인들이 생존해 계시는 때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 정돈하여 한국선교의 롤 모델이 된 선배들의 삶과 사역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므로 역사성을 보존하며 전수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브라질 및 남미 선교는 그 어떤 지역보다 선교사역을 감당하기가 힘들다. 브라질과 남미는 1)카톨릭국가이므로 2)너무 거리가 멀고 경비가 많이 들어 가므로 더 이상 선교사를 파송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제 우리 선교사는 뼈를 깎는 수고를 해야 한다. 자기 발전이 없는 선교사역을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렵다는 오늘의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아태아대학원은 선교 동역자들에게 공간과 시간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혜롭게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함께 모여 공부하고 연구하

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게 하는데 또 하나의 목적을 두고 있다. 시간과 경비의 절감과 효율적인 자기 개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열한 번째로 세워지는 남미아태아 대학원은 성경의 절대권위와 성령의 인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동시에 브라질 및 남미의 상황에 적응할 있도록 브라질 및 남미 지방학을 깊이 연구하고자 한다.

감사하옵기는 이번 발제강의자는 현장경험이 많은 1.5세 출신들이 자신들의 선교사역에서 경험한 현장의 실체를 토대로 발제하였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아태아대학원은 전통적인 캠퍼스 개념은 없다. 대신에 컨소시엄을 이룬 회원 교회와 학교 또는 훈련원과 연구소를 중심으로 선임연구원과 일반 연구원이 선교현장과 사역을 과제로, 아카데미한 학문적인 연구를 하므로 실제적인 사역에 적용하기 쉽도록 하고자 한다. 시작은 어설피고 미약하지만 오늘 아태아대학원을 개원을 하였다는 역사적 의미를 둔다. 남미아태아대학원을 개원할 수 있도록 축복하는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며 장소를 제공하고 물심양면으로 수고해주신 영광교회 성도들과 당회 장로님들 그리고 선교위원장 김영수 장로님을 비롯한 선교위원들과 김용식 목사님과 영광교회 교역자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바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경비를 들여 좋은 강의와 함께 남미아태아 대학 개원을 축하해 주시며 격려해 주시는 김의원 총장님과 사모님, 김연수 박사님과 성남용 박사님께 감사드리며 귀중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발제강의를 해주신 김용식, 박성흠, 지택진 장현택, 장화경 박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함께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 기도해주신 디아스포라 선교회 동역자들에게 감사사를 드린다.

kangsungchuel@gmail.com

(13면으로 계속)

어린이 교육후원에 감사

MG 기업에서 직원들이 3월부터 9명의 어린이 교육후원비를 정기적으로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이 교육 후원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2016년 기도제목:

1. 미접촉 지역 14번 째 교회개척: 오로모주 아마로 지역에 14번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2. 선교센터 건축: 하일루 장로님이 기증한 땅에 선교센터,유치원, 목회자 훈련원이 건축되기를.
 3. 신학대학원 교수사역: 2016년 2학기 수업 (장은혜선교사) 논문지도를 통해 지도자 양성및 제자화를 할 수 있도록/장은혜 선교사 박사 논문이 에티오피아 선교에 도움이 되도록 책으로 출판 제작을 위해
 4. 성경 30,000권 배포사역: 아디스아바바 대학생을 위한 집회와 성경 배포 사역이 계속되고, 현지어 성경 배포를 위한 모금이 채워지도록.
 5. 무슬림 지역 유치원 2호 건축: 무슬림지역에 복음전도를 위해 유치원 1호를 건축했는데, 250여명의 어린이들이 출석하며 공부하고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무슬림 지역에2차 건축을 준비 중입니다. 지역 선정과 건축비 모금이 이루어지도록.
 6.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 가족 돕기: 연로한 참전 용사 할아버지의 노후된 집 20여 채를 개축하고 있는데 필요한 재정과 지역주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7. 극빈 어린이 학비 후원연결: 극빈 가정 어린이들과 참전 용사 자녀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후원자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꿈을 안고 자랄 수 있도록
 8. 선교사 가족의 영육간의 건강함/대선이, 지연이의 영적성숙, 직장생활 평안, 배우자, 지연이 5월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을 위해서.
- 선교지에 있는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주시는 자는 하나님이며, 여러분의 강력한 기도가 선교사 가족을 응급한 상황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동일한 주님의 보호하심과 평안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길 기도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 주안에서,
박종국, 장은혜(대선, 지연)선교사 드림
cushpark@gmail.com

십자말 • Cross Word (124)

김기호 장로(본지 교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가로 푸는 열쇠>

1. 흥음과 좋지 않음(민13:19).
3. 마을 근처에 있는 낮은 산(아6:2).
5.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높여 부르는 말(눅1:3).
7. 창고를 지키는 사람(스7:21).
9. 말 타는 군인(대하1:14).
10. 야벳의 손자요 야윈의 아들이다(창10:4).
11. 세 날(행9:9).
12. 지환(指環)(눅15:22).
13. 보좌 앞에 수경과 같은 OOOO가 있고.....(계4:6).
15. 어룡어룡한 무늬가 생기고...(숙6:3).
18. 골리앗의 아우(대상20:5).
20. 적당한 기회(롬13:11).
21. 새끼 양(벧전1:19).
23. 세상에 널리 드러내어 알림(시78:2).
24. 부자일수록 더욱 부자가 됨(명사).
27. 품은 뜻과 몸가지이 조촐하고 높아 속된 것에 굽히지 않는 기사가 있음(벧3:8).
28. 살아나올 길이 없는 곳(잠5:5).
29. 산뜻하게 모양을 내어 꾸미는 물품(창33:6).

<세로 푸는 열쇠>

1. 호수나 식구별로 기록한 장부(눅2:1).

2. 요인을 지키기 위해 딸린 질병(왕하11:11).
3. 괴로움도 즐거움도 함께 함(명사).
4. 산이 많은 땅(수20:7).
6. 우주 만물의 창조자(창1:1).
8. 영적인 호흡.
9. 므라리의 아들로 레위족속의 족장이다(출6:19).
11. 죄를 용서하여 줌(시130:4).
12. 예수께서 무덤 사이에 있던 귀신들린 두 사람을 고쳐서던 지방의 이름(마8:28).
13. 아내의 옛스러운 말(렐6:11).
16. 가리켜 보이는 표(렐21:19).
17. 온갖 동물의 살(신12:20).
19. 끝을 맺지 못하고 흐리멍덩하게 넘겨 버리는 모양(부사).
21. 마음이 너그럽고 부드러운 채하고.....(왕하10:3).
22. 양아버지(사49:23).
23. 유다와 히스기야 시대의 바벨론 왕 므르다발라단의 아버지(사39:1).
25. 물에 빠져 죽음(명사).
26. 성정(性情)(신2:30).

십자말 정답

산	표	호수	창	표	죽	죽
표	호수	창	표	죽	죽	죽
산	표	호수	창	표	죽	죽
표	호수	창	표	죽	죽	죽
산	표	호수	창	표	죽	죽
표	호수	창	표	죽	죽	죽
산	표	호수	창	표	죽	죽
표	호수	창	표	죽	죽	죽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강사: 라흥재 목사



영어판, 중국어판 책도 판매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



도서
주문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109)

7.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한인교회를 위한 심리학적 기초 (33)

(Psychological Foundations for Korean American Christian Education)



정신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대학교신학대학원 교수)

우리는 지금 한인교회를 위한 교육적 기초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기초들 중에서 한인교회교육을 위한 성경적 기초들, 신학적 기초들, 철학적 기초들, 역사적 기초, 및 사회학적 기초에 대한 논의들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야기부터는 한인교회교육을 위한 심리학적 기초들(Psychological Foundations for Korean American Christian Education)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인교회를 위한 기독교교육의 심리학적 기초 중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기독교적/성경적 관점에서의 인간에 대한 심리학적 기본가정들(Basic assumptions of the psychology of persons)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본적으로 심리학은 "사람들"에 관한 담론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선

다음세대 자녀들의 육체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 것이 분명하지만, 또한 분명히 육체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존재 안에 영과 육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자칭 기독교교육이 영적인 것만을(혹은 지적인 것과 정서적인 부분과 함께 영적인 것) 다루는 것이며 육체적인 것은 다루지 않는 것으로 여기거나 실제로 등한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인간은 육체를 가진 존재라는 기본가정은 우리가 교육하는 자체들과 자녀들의 육체적 활동 및 행동을 다루어야 하며 또한 성 및 성별 부분도 또한 영과 육 및 행동 패턴 등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해야만 한다는 것을 일깨워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가정은 "인간은 이성적 존재"

단, 및 결정 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고 이와 같은 가정이 교육에 있어서 더욱더 인격을 형성시키는 부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그들의 의도, 판단, 결정 등을 통해 책임감 및 성실성과 같은 덕목들을 얼마나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지 가늠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들을 기독교적 덕목을 가진, 기독교적 인격을 가진 사람들로 양육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가정은 "인간은 공동체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역자들이 교육에 임할 때, 우리가 교육하는 자체들과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과, 그룹들과, 단체들과, 다른 여타의 사회적 공동체들과 혹은 그 속에서 어떻게 관계 맺는가를 유심히 살피고 고려해야만 한

인간에 대한 심리학적 기본가정 6가지:

- 육체성 ■ 이성적 존재 ■ 감정성 ■ 의지성 ■ 공동체-관계성 ■ 고유성

이야기에서 밝혔듯이 심리학은 인간의 행동적, 인지적, 정서적, 정신적, 관계적, 그리고 발달적 양상들 및 그것들과 관련된 삶에서의 패턴들에 대한 담론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자신들과 우리가 교육하고 섬기는 우리 자체들과 다음세대들의 행동적, 인지적, 정서적, 정신적, 관계적, 그리고 발달적 양상들 및 그것들과 관련된 삶에서의 패턴들에 대한 통찰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에 대한 심리학적 기본가정들을 세우고 세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기독교적/성경적 관점에서 그러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한인교회를 위한 교육적 기초" 논의들의 주된 자료가 되어주고 있는 "기독교 교육의 기초적 이슈들(Foundational Issues in Christian Education)"이라는 책에서 저자인 로버트 파즈미노(Robert Pazmino)는 자신이 세운 인간에 대한 심리학적 기본가정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우리 사역자들이 인간에 대한 자신들의 심리학적 기본가정들을 세우고 세련하는 일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특히 이는 오래 전 철학적 기초를 통해 살펴본 기독교적/성경적 인간관과 관련하여, 기독교적/성경적 인간에 대한 심리학적 기본가정들을 고민하고 세워 나가는 일에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 첫 번째 가정은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역자들은 우리가 교육하는 우리의 자체들과

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부분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에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가 교육하는 자체들과 자녀들의 사고하는 수준 및 패턴 그리고 논리를 전개하는 능력과 패턴 등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에 임해야 합니다. 그들의 인지과정 상의 구조와 내용들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교육의 현재 모습을 들여다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부분에 너무 치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을 정도이지요).

세 번째 가정은 "인간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우리가 교육하는 자체들과 자녀들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며 그들의 삶에 있어서 정서적 차원이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에 그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그들이 느끼는 감정들, 어떠한 행동 근저의 동기들, 그리고 그들이 보이는 태도들을 면밀히 살피고 예민하고 세심하게 반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감정, 동기, 태도 등은 그들의 삶과 존재방식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가정은 "인간은 의지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수많은 결정들을 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교육하는 자체들과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사역자들은 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할 때, 그 행동 뒤에는 어떠한 의도, 판

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은 돌봄과 책임이 있는 관계, 정의롭고 평화로운 공동체의 삶 등 기독교적/성경적 공동체 가치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교육이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가정은 "인간은 한사람 한사람이 고유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사람 한사람을 유일무이한 존재로 각각의 가치를 가진 존재로 각각의 존재의미와 목적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즉 모든 인간은 각자의 독특한 직감과 직관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일반적인 분석적 카테고리 초월하는 성격, 상상력, 가치 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사역자들은 우리가 교육하는 자체들과 자녀들이 각자의 고유함을 가지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교육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가정을 통해 우리는 확실히적인 것을 지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며, 다름의 가치를 충분히 지향할 수 있어야 함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6가지 살펴본 인간에 대한 심리학적 기본가정들을 잘 이해하고 새기는 것을 통해, 우리 사역자들이 교육에 대한 지경을 넓히고, 그 넓어진 지경에 질서를 더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인간 발달과 관련된 심리학적 기초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inaichung@yahoo.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캠보디아선교사)

월 전파의 내용(마10:7-15)찬257장

전도자가 전파할 내용은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첫째, 천국이 임했음을 전하는 일입니다(7).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리키는 데 그리스도의 오심은 천국이 임한 것과 같습니다. 기다리던 천국이 임한 사실은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을 알 때 믿어 그 나라로 즉각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치료하는 일입니다. 근본치료는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방법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근본치료를 받고 그 치유의 능력이 모든 방면에 나타납니다. 셋째, 생활을 통해 천국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생활 자체가 천국의 삶이며, 전도자 자신이 성결과 화평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천국은 성령 안에서 얻어지는 의와 평강과 화평을 나타냅니다. 주님의 전도방법을 따라갑시다.

화 주를 위해 받는 핍박(마10:16-23)찬434장

전도자의 길에 고난과 핍박이 따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럴 때 전도자는 어떻게 극복해야합니까? 첫째, 지혜와 순결이 필요합니다(16).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전도자. 자신에게는 이런 일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람들을 삼가해야 합니다(17). 전도자는 사람들

조심해야 합니다. 근본이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자가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셋째, 핍박을 견디어야 합니다(18-23). 복음 때문에 온갖 비난과 욕설과 오해와 체형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때, 이기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 견디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수 전도자의 두려움(마10:24-28)찬409장

첫째, 세상의 거짓 증거를 조심해야 합니다(24-26).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도 귀신의 왕이란 말을 들었는데 전도자는 더한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을 생각하고 견디어야 합니다. 둘째, 몸만 죽이는 자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28).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는 세상은 자기 욕심 때문에 위험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역사상 수많은 성도들이 체형을 당하고 순교했습니다. 이

때를 이기는 길은 스테판처럼 성령이 충만한 인자를 바라보아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전도자의 조용한 말 한마디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셋째,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28). 몸과 영혼을 멸하실 주권자를 기억하고 그의 명령을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주님이 전도자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그 분만을 두려워하는 자가 복됩니다.

목 하나님의 간섭하심(마10:29-33)찬364장

전도자의 위로는 섬리의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십니까? 첫째, 참새 구이집의 모든 거래까지 간섭하십니다(29). 하찮은 참새가 떨어지고 끌리는 모든 거래행위조차 친히 간섭하시는 그 분은 전도자의 외침과 전도지를 배포하고 믿음으로 전하는 모든 복음 활동을 친히 다스리십니다. 둘째, 머리털까지 세시고 희고 검게 하는 세포의 변화까지도 친히 간섭하시

는 자상한 분이십니다(30-31). 그의 결재 없이 결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보면 전도자는 큰 담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전도자의 모든 말 한마디로 간섭하십니다(32-33). 사람 앞에서 행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아는 전도자는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에 적극 참여하십시오.

금 검을 주러 오신 주님(마10:34-39)찬355장

검은 싸움과 심판을 상징하지만 주님이 오신 목적을 이루는 중요한 무기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신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첫째, 이를 기호한 화평을 이루기 위함입니다(34). 무분별한 세상에서 주님은 십자가와 그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구별하셨습니다. 이 의가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가져옵니다. 둘째,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십니다(37). 인륜을 여기면서까지 사랑하라는 도

리는 참다운 윤리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열심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셋째,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38-39). 자비를 부인하는 절정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십자가의 효능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생명을 얻는 열쇠적인 길입니다. 검을 주러 오신 주님을 환영하십시오.

토 상을 받을 사람(마10:41)찬379장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상급 받으려는 열심을 갖게 합니다. 무슨 약속이 주어졌나요? 첫째, 선지자를 영접한 자의 상급(40)-사도의 증거는 그리스도의 증거이고 그리스도의 증거는 성부의 증거입니다. 상급 중의 상급인 하나님을 즐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자신이 가진 지극한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그 분에게서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둘째, (41)선지자의 상을 받

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심도 감사한데 상급을 약속하시니 더욱 감사한 일입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의 상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소자를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상을 받는 길입니다(42). 주를 위한 작은 수도 하나님도 상을 잃지 않습니다. 그 복된 상을 얻기 위해 뜻대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갑시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호2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 (031)397-8754-5 군포시 금곡동 870-10호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r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1(131-231)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상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금요일예배: 오후 9:00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3-8670(교우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새이덴교회 담임목사: 소상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침례인물 위한 헌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3:3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새벽찬양예배: 오후 6:30 Tel. (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강동구 목동2동 520 (142-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후 5:30 (토요일은 쉰다) www.seongsil.or.kr Tel. (02)92-990-9908, Fax. 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43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후 5:30 (토요일은 쉰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713-26호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문동 416-4(404-270)	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일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새벽(02)389-2235 (110-290) 서울시 중로동 137번지	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리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선홍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Tel. (82)2-842-1968, 새벽(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	신천교회 담임목사: 송용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17길 29(남대문동)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후 5:30 Tel. (82)2-786-6579, 새벽(8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안양 제일교회 담임목사: 조 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5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심야기도회: 오후 8:30 Tel. (011)82-927-5511 서울 용매동 제1가 2동 146-7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8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봉곡로 415 www.yangok.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9-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30 Tel. (02)842-6881, Fax. (02)842-6882 (136-631)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299-1(140-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5:3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준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

인/터/뷰

현장을 찾아가는 세미나... “청교도와 성경교육” 청교도복음연구회, 5월 30일 플리머스에서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전 세계 기독교계가 분주해지고 있다. 아울러 종교 개혁 자체 뿐 아니라 청교도 신앙에 대한 조명도 다시금 힘을 얻고 있다.

뉴욕에서 지난 수년간 꾸준히 청교도에 대한 연구를 해온 청교도복음연구회(회장 김필식 목사)가 오는 5월 30일 제 6회 청교도 세미나를 갖는다. “청교도와 성경교육”이라는 주제로 갖는 이번 세미나 장소는 청교도와 떼를 수 없는 곳인 플리머스 메이플라워호와 플리머스 플라네타리엄 정착촌이다.

세미나 강사인 회장 김필식 목사(뉴욕영림교회 담임)와 총무 이창종 목사(뉴욕동서교회 담임), 그리고 김경옥 청교도복음가정사역원장이 뉴욕 본사를 방문했다.

-먼저 ‘청교도복음연구회’ 설립의 동기와 취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왼쪽부터 이창종 목사, 김필식 목사, 김경옥 원장

김필식 목사: 크리스천들이라면 작금의 어지러운 사회를 볼 때 이 시대가 최악의 깊

“힘든 상황 속 타협하지 않는 믿음 배워 이민생활에서 하나님나라 증거 하도록”

어가는 영적인 암흑기임을 공감하며 탄식과 회개와 개혁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는 미국사회를 계도했던 청교주의적 삶은 변질되고 WCC와 같은 혼합주의에 물들면서 여러 이단들이 나타나는 등 순수 신자들이 사그라지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 역시 이민목회를 30년 정도 해오면서 영적인 고갈을 맞으면서 어떤 말씀이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힘을 줄 수 있나 기도하던 중 몇해 전 리처드 십스 목사의 “상한 갈대”를 다시 읽으면서 바로 여기에 미봉채이 아닌 개혁신앙을 이어가는 좋은 답이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뜻을 직감하고 많은 은혜를 받고서 같은 동역자들에게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여 청교도복음을 연구하여 나누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지만, 청교도적 신앙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가 KAM(The Korean American Ministry)에서 시작된 만큼 성경말씀 묵상과 함께 이 연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삶에 적용돼, 특히 고군분투하는 이민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사역자 및 그 교회에 큰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올해로 제 6회 정기세미나가 개최되는 것으로 하는데, 구체적인 연혁과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요?

이창종 목사: 처음에는 청교도복음연구회 내에 두어 지금도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청교도 복음가정사역원(김경옥 원장, 화가, 선교사)이 한국에서 2011년 2월 14일-17일 영림교회에서 제1회 사역자를 위한 ‘은혜의 부부교실’을 개최하면서 시작됐다. 3회부터는 일일세미나로 바뀌면서 본 회에서 주최 및 주관하게 됐습니다.

매년 주제를 정하고 그에 적합한 장소를 사전 답사해 구제와 되면 현재까지는 본 회의 임원에게 주제와 강의를 요청해 작지만 내실 있게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누구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되기에 앞으로는 교계의 관심 있는 목사님들을 강사로 하여 함께 확산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단은 점점 크고 강력해지고, WCC같은 단체는 전 세계를 하나로 묶고 있는 이때, 지나친 개교회주의로 자신 교회의 부흥과 성장만을 향해 가느라 대적할 힘도 시간도 빼앗겼던 지난날을 버리고, 앞으로 건전한 모임이 뭉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청교도 연구회도 있긴 합니다만, 특별히 이 회에서는 현장 탐방을 하면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김필식 목사: 원래 미국은 청교도 Pilgrim Fathers들에 의해 건국된 나라로서 청교도 선진들의 유적이 많이 남아 있으므로 본회는, 이를 청교도 교과서로 삼아 청교도에 관한 교회사적 지식과 미국의 역사는 물론이

고 현장탐방이므로 직접 청교도 선진들의 삶을 몸소 체험하게 하자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어떻게 저런 힘든 상황 속에서 굴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생활을 감당했는가”라는 자극을 초대교회, 개혁시대보다 더 가깝게 느껴서, 어려운 이민생활에 낙심하지 않고 교회를 섬기며 자립할 수 있도록 강인한 믿음을 전수하고자 하는 것이 특색이라 하겠지요.

또한 세미나를 가능한 현장에서 진행하므로 그 감동이 더한 것 같습니다. 문헌고찰이 아닌 실제 탐방으로 인해 다각적으로 청교도 정신과 신앙심 고취의 기도제목으로 삼게 되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청교도복음가정사역원’이라고 하면 그 회에 속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특별히 다른 가정사역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는지요?

김경옥 원장: 가정사역에는 여러 방향과 단계를 있으나 요사이 보면 ‘기독교심리학’이라는 이름으로 지나치게 심리학 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을 보게 되는데, 청교도 성도들이 성경을 바탕으로 확고한 신앙관을 가지고 삶속에서 말씀을 지켜나갔듯이 가정사역 역시 교회의 목회선상의 연장임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예배, 전도, 양육, 선교 등 교회의 목적과 동떨어져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상담이나 특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프로그램 속에서 다른 것들과 기능이 연결되면서 내조 목회로서의 말씀중심, 기도중심의 상담과 양육이 되게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아미쉬(Amish)처럼 그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그때 것을 오늘에 가져와 성경적 관점으로 세워진 청교도의 가정의 원칙 등이 많은 참고가 됩니다. 먼저 말씀 앞에 철저히 서고 강력한 말씀대로 살아가면 능히 인본주의와 자기행복추구의 세속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 믿음의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독교교육, 목회학, 선교학 등을 공부하며 타 사역기관과 긴밀한 상호교류를 하면서 보면 속에 특수를 세워야 할 줄로 압니다.

-앞으로의 계획이나 비전이 있다면 소개 해주시지요.

김필식 목사: 크게 욕심내지 않고, 우선 ‘연구회’라는 이름대로 청교도 목사님들의 저서를 탐독하며 거기에 나오는 진솔한 말씀들을 연구하여 나누며, 가능하다면 성도들도 참석해 청교도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이민생활에서 실천해 나가며 후손들에게 물려줄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증거해 나가는 것이 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원정 기자)

“하나님과 교회위해 귀히 쓰임 받는 젊은이” 참사랑교회 유스 지휘자 이주는 바이올리니스트 졸업연주회

참사랑교회(담임 은희곤 목사) 유스 오케스트라 지휘자인 이주는 자매의 졸업 연주회가 5월 17일(화) 오후 8시 줄리아드 홀 리사이틀 홀에서 열린다.

바이올린 전공의 이주는 자매는 줄리아드 음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을 이번에 졸업한다.

은희곤牧사는 “맨해튼에서 매 주일 아침 오전 6시30분에 나와 교회 1부 예배 오케스트라에서 헌신하고 있다. 어머니도 유명한 피아니스트(박인혜 권사)이신데 교회 오케스트라에서, 딸은 유스 오케스트라에서 5년째 섬기고 있다”며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귀히 쓰임 받는 젊은이”라고 소개했다.

“화려한 영감들(Colorful Inspiration)”이라는 주제로 연주되는 이번 공연의 프로그램은 1)Grieg Violin Sonata No. 3 in C minor, Op. 45, 2)Samuel Zyman Piano Quintet "Bewildered", 3)JP Jofre Violin & Bandoneon Duet "Como el Agua," "Tangodromo", 4)Prokofiev Violin Sonata No. 2 in D Major, Op. 94a.

이주는 자매는 “시대별로 좋아하는 곡들을 한국적 삽입해서 여러 가지 색깔들을 표현하고 싶었고, 평소에 보기도 드문 융합으로 ‘반도이언’이라는 악기와 함께 소품 두곡을 연주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Samuel Zyman이라는 작곡가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존경



하는 학교 음악문법 교수님이신데, 교수님 작곡 피아노 오중주곡을 연주함으로써, 그동안 저를 위해 힘써주신 것들에 대한 작으나마 보답을 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주는 자매는 석사과정을 공부하면서 Martin Segal Scholarship, Michael and Ethel Cohen Scholarship, Christine and Edouard Dither Scholarship 등의 장학금을 받아 왔으며, 이번 음악회가 ‘감사의 음악회’라고 덧붙였다.

이 자매는 올해 The New York International Competition for Young Artists 우승을 비롯해 수많은 대회 우승과 공연을 가진 바 있다. 아버지 이관철 권사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정리: 유원정 기자)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7면에서 계속)

‘한인감리교선교회’가 1905년 4월 1일에 ‘한인감리교회’로 승격되었다. 한인감리교회는 예배당 건축을 목표로 한 푼 두 푼 모은 300달러와 한인의 믿음에 감탄한 농장주가 현금한 1천 달러를 합쳐 총 1,300달러의 공사비로 1905년 7월 9일 예배당을 신축하였다.

홍승하는 귀국하지 않을 수 없었으니 하와이 기후에 적응하지 못한 체 건강이 악화되었기 때문이었다. 예배당 건축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았던 1905년 7월, 그는 귀국했다. 그의 후임으로 감리교 신학교 1회 졸업생인 민찬호 목사가 부임하였으니 그나마 다행이었다.

귀국 후 사역

귀국한 홍승하는 인천 내리교회 전도사로 봉직하였다. 홍승하는 귀국한 지 3개월 후인 1905년 10월에 회집한 제물포 회의가 담긴 사진에서 나타난다. 홍승하는 외국을 아는 인사답게 양복을 입었는데 함께 찍은 8명과는 다른 복장이었다.

아내를 잃는 슬픔 가운데서도 홍승하는 복음사역에 투신했다. 그는 강화와 인천 그리고 남양 등에 복음을 전

하였고 남양에 6칸 예배당을 건축하였다.

1907년 집사목사로 안수를 받은 홍승하는 1908년까지 남양구역의 초대 순회목회자로 사역하였다. 그 후 그는 공주지방으로 파송되어 공주교회를 돌보면서 인근지역선교를 감당하였다. 홍승하가 1912년 장로목사가 되었을 때 수원 지방으로 전임한다. 홍승하는 수원 종로교회에 류홍준 전도사를 파송하고, 그의 수원 지역 중앙의 4구역에 맡아 순회하며 전도했다. 그는 미국 알테라 박스 디터 부인이 현금한 미화 150불(당시 300원)과 기존 예배당의 추가재목을 판 돈과 교인들의 건축금 등 총 900여원으로 합석제 40평의 수원 종로교회 예배당을 신축했고, 1914년에는 기와집 40평의 삼일여학교를 건축하였다. 홍승하는 복음 사역뿐 아니라 급주와 금연운동 등 문화 사역에도 앞장섰다.

별세하기 얼마 전인 1918년 4월 24일자 기독교신보에 실은 아래에 소개한 찬송시의 4절에서 홍승하의 선교적 신앙을 엿볼 수 있다: “어화우리 동포들아 어서 속히 나와서 천부님의 크신 사랑 성자님의 속죄구원 성신님의 감화능력 값없어도 가난해도 오면 영생 주시리니 의심 말고 곧 오시오.”

홍승하 선교사는 1918년에 향년 55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우리 곁을 훌연히 떠났다.

damien.sohn@gmail.com

진도에 날개를 달아라

이윤재 목사 (분당한신교회)
소강석 목사 (새에덴교회)
전병길 목사 (강남교회)
장경동 목사 (대전중문교회)
주성민 목사 (세계로 금관교회)

추천!!!

진도는 은사 받은 자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최고의 전도서다.
한신교회 5년 연속 전도왕, 교단 2회 전도 우수상, 20여 교회 전도집회 인도 등 전도에 열정을 다하고 있는 귀족상 장로의 경험을 고스란히 담았기에 전도 내비게이션과 같다.

곽준상 지음 | 278면 | 13,000원

사람이 없는 광야에 비는 내리고

삼대지 설교본 아니라 4페이지 설교, 이야기 설교, 분석 설교 등 다양한 설교 구성 방법을 본문에 맞게 적용해온 저자에게 설교 기법을 배울 수 있어서 내용이나 구성에서 설교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좋은 자료가 되는 청주침례교회 김진홍 목사의 10번째 설교집.

김진홍 지음 | 384면 | 13,000원

아빠! 여기생을 어떻게 드려요?

신앙고백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도신경 강해를 통해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갖고 거기에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책에 신앙고백의 기본 설교 22편을 담았다.

아빠!
어떻게 열매 맺는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요?

산상수훈은 천국시민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키고 추구해야 할 실제적인 삶과 규범을 가르친 기독교 윤리의 대강령이다. 이 책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바로 알고 실천적 행함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천국시민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다.

최명일 지음 | 360면 | 13,000원(각 권)